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혜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강 정철의 시조 문학 교수 방법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백 민 정

송강 정철의 시조 문학 교수 방법

강혜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백 민 정

인 준 서

백민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의원 _____(인)

심사의원 _____(인)

심사의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고는 송강 정철의 시조문학에 대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철의 문학은 거침없는 표현과 재치 넘치는 착상, 그리고 우리말의 빼어난 구사로 정철 문학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의 가사 작품들은 문학사에서 남을 만한 수작으로 가사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가 교육에서도 송강의 가사 문학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을 가르쳐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철은 뛰어난 가사 작품 뿐 아니라 그의 문학적 특징이 더욱 돋보이는 다양한 시조 작품들도 교육학적 조명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철의 시조들의 교육학적 의의를 살피고 그에 알맞은 학습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먼저 현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송강의 시조들에 관한 교육현황을 분석해 보며 정철 시조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철의 시조 문학이 시조 교육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학습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정철의 시조 문학을 교훈시조, 풍류·흥취의 시조, 이별 시조의 3군으로 나누어 시조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정철의 시조가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지는 「훈민가」 외에도 다양한 시조 작품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해 정철 시조만의 특질과 우수성을 생각해 보고 교육학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류한 3군의 시조를 각각 윤리 교육의 측면, 시조 감상의 측면, 문학의 표현 이해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교육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시조 문학 교육이 지나치게 지식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가만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3
II. 정철 시조의 교육 현황	7
1.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시조 수록 현황 (7차 교육과정)	7
2. 18종 문학 교과서의 정철 시조 교육 현황	11
III 정철 시조의 교육적 의의	24
1. 훈민 시조 - 생활교육의 면모	24
2. 풍류·흥취의 시조 - 소박한 삶의 지향	37
3. 애정·연군의 시조 -이별의 정한 토로	46
IV. 정철 시조의 교수 학습 방안	51
1. 「훈민가」를 통한 윤리교육	53
2. 풍류·흥취의 시조를 통한 정서 함양 교육	62
3. 애정·연군 시조를 통한 시조의 수용 교육	72
V 결론	81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I 서론

1. 연구목적

시조문학은 근 800여 년의 오랜 역사성과 보편성을 지닌 국문 시가의 정수이며 우리의 고전 시가 양식 가운데 가장 두터운 향유층과 작가층을 가졌던 문학이다. 또한 4음보 3장 6구체라는 정제된 형식미로 고대시가의 전통을 지니며 중세, 근세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창작되어 국민문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조문학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형태적인 간결성 속에 자연스러운 서정의 발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우리 민족의性情(性情)에 그만큼 잘 맞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체험과 가치관이 용해되어 있는 시조문학을 통해 우리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접하고 민족 정서를 익힐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시조문학은 교육적으로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조 문학 교육을 통해 우리 문학의 특질을 익히며 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찰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조를 감상을 통해 문학을 수용하고 내면화 할 수도 있다.

이렇듯 교육적 가치가 있는 시조 문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작가가 바로 송강(松江) 정철(鄭澈)이다. 고전 시가 교육에서는 송강 정철을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와 쌍벽으로 매김하며, 특히 정철을 가사문학의 독보로, 고산을 시조 문학의 1인자로 추대해 온 경향이 있다. 물론 고산 시조의 평범하고 진솔한 담론과 우리말을 같고 닮은 시어의 세련미, 그리고 정화된 정서의 순수미는 높이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또한 송강 정철은 유독 가사 문학에서 독보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따라서 문학 교육에서도 시조는 윤선도의 작품을 가사는 정철의 작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하지만 가사로 대표되는 정철의 문학에도 상대적으로 호방하고 담대한 스케

일과 재치 있는 말걸이 특징인 시조 작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교육에서는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상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학습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만 정철의 다양한 시조에 대해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텍스트 선정에 아쉬움을 보인다.

정철의 시조는 그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어의 미학이나 시조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교육적인 의의 가지고 있다. 그의 가사 문학이 우리말의 뛰어난 구사와 적절한 표현으로 그 우월성을 인정받는 것처럼 그의 시조 문학 역시 우리 고유어를 사용하여 시적 언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쉽고 익숙한 일상어를 사용하여 나타나는 정철 시조만의 생활문학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름다운 시어들의 화려한 수사법으로 현란한 미적 가치를 뽐내는 시조 문학은 시에 쓰이는 언어의 특별한 가치 등에 중점을 두고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현행 교육에 있어서도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시의 음악성과 함축성, 형상성을 중점으로 하여 교육되고 있다. 하지만 시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문학의 미가 비단 서정적인 언어들과 화려한 수사기법에만 있는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어와 고유어를 통해 나타나는 소박한 아름다움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문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에서 쓰이는 함축과 은유, 비유 등의 수사법 사용으로 시 자체의 내용 이해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정철의 시조 문학이 쉬운 일상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생활 속 평범한 소재들을 활용하며 특별한 기교 없이도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조 문학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정철의 시조는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철 시조의 생활 문학적 측면에서도 교육적인 활용도가 높은 시조이다. 현대의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모든 문화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시대에 살

고 있다.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터넷이라는 문화 공간 속에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쓰는 일기나 영화 감상 등이 하나의 문학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생활 문학의 성격이 강한 송강 정철의 시조는 시 문학과 시조 문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습자들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문학 교육이 문학성과 독자 중심의 접근 방식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시어의 미적 특질과 작품의 감상적 측면에서 정철의 시조가 더욱더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 정철의 시조는 고유어의 사용이 높아 정철 시조만의 특징을 구축하고 있고 풍류와 흥취가 느껴지는 시조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조들을 시조 감상의 교육적 텍스트로 적절한 점 역시 정철의 시조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철의 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시조 문학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철의 시조 작품이 어떠한 부분에서 시조 문학으로써 교육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나 연구해 보도록 한다.

2. 연구사

정철의 시조 문학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시조 문학의 학습 방안으로 논의 되었던 논문들과 정철의 문학에 관한 연구를 나누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정철 시가의 교육 방안으로 나온 연구 논문들을 정리하여 연구사를 검토해 본다.

먼저 정철 문학 연구의 시작은 1930년대 이병기, 조운제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병기는 1936년 『송강가사의 연구』¹⁾에서 「송강가사」의 판본 고정을 비

1) 이병기, 「송강가사의 연구」, 『진단학보』 7호, 1937.

로 하여 정철의 생활과 그 가도의 전통을 살피었다. 정철의 작품에 대한 진술 방식에 주목한 논의로 김병국²⁾은 『송강가사』의 다채로운 진술 방식에 주목을 하였으며, 권두환(1984)³⁾은 「훈민가」에서 정철이 ‘목소리를 낮추어’ 백성들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훈민가」를 연구하였다. 또한 정철의 문학과 주기철학과의 관련을 제기하는 논의로 신영명⁴⁾, 신용대⁵⁾ 등은 정철이 속한 정치집단의 성격에 주목하여 정철이 율곡학과의 주기철학적 입장을 견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석회⁶⁾는 정철이 처한 정치적,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그의 시가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다음은 시조교육에 관한 연구들이다. 먼저 시조문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연구로 허왕욱⁷⁾은 시조교육과 관련하여 고시조의 의미 형상화 방법 및 작품 내의 대화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고산구곡가」를 그 예로 하여 문학교육에서 고시조 작품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을 중심으로 시조문학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노인숙⁸⁾은 고등학교 국어과 시조 교재를 중심으로 수준별 시조 수업모형을 제시했다. 수준별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목표와 평가에 대한 설정이 중요한데 이를 집단 내에서의 기준이 아닌 학습자의 학습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정숙⁹⁾은 교과서에서 시조만을 분리하여 수업설계를 하고, 고시조 2편과 현대시조 2편을 분석하여 수업 내용을 추출하였다. 시조를 기초로 수업 내용을 비교적 학습하기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수업 내용의 순서로 수업 목표를 설정한 후, 이에 따라 학습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적 방식을 보여주었다.

2) 김병국, 「장르론적 관심과 가사의 문학적성」, 『현상과 인식』 제 1권 4호, 1977.

3) 권두환,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김학성 권두환 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4) 신영명, 「16세기 강호 시조의 연구-정치적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5) 신용대, 「정철 시조의 성격 연구- 이기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6) 김석회, 「정철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1981.

7) 허왕욱, 「고전시가작품에 접근하는 교육적 관점」, 『시조학 논총』, 제 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8) 노인숙, 「수준별 시조 수업모형」, 『시조학 논총』, 제 15집, 한국시조학회, 1999.

9) 박정숙, 「시조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교육』 제6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김덕현¹⁰⁾은 제 7차 교육과정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시조를 바탕으로 시조문학 교육의 면모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시조문학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실체 분석과 방향을 설정하여 시조문학 교육의 다양한 연구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조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내용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권용덕¹¹⁾은 현행 고전문학 수업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살폈다. 또한, 문학 교육의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습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성아¹²⁾는 새로운 교수모형을 구안하기 위해 창의성 신장을 위한 기법, 구성주의 교수-학습원리를 완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시가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한 정철의 시가 문학에 대한 교육적 방안에 대한 논의로는 주로 「속미인곡」과 「사미인곡」 등 ‘가사’ 교육에 치중되어 연구되어 왔다. 먼저 서중관¹³⁾은 「훈민가」의 지도론에 대해 의미 분석과 다른 훈민시조와의 비교를 통한 「훈민가」 지도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노수경¹⁴⁾은 「훈민가」를 통한 시조 창작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훈민가」의 의미구조에 따른 시상의 전개에 방법과 시조 창작교육을 위한 「훈민가」의 시상 전개 방법을 동시에 분석하여 「훈민가」를 통한 시조 창작 교육을 연구하였다. 안정희¹⁵⁾는 정철의 「관동별곡」의 교수-학습방안을 연구하여 정철의 가사 문학의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그는 가사와 시조의 장르적 특성을 분석하며 「관동별곡」과 「훈민가」에 나타난 충효사상을 비교하여 「관동별곡」을 분석 후 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강기묘¹⁶⁾는 정철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효과

10) 김덕현, 『시조문학 교육론』, 박이정, 2004.

11) 권용덕, 「고전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학석사논문, 2000.

12) 최성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시가 교수-학습방법 연구」, 서강대 교육학석사논문, 2003.

13) 서중관, 「정철의 「훈민가」 지도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14) 노수경, 「의미 구조를 활용한 시조 창작교육: 「훈민가」를 적용한 시상 전개 방법 익히기」 홍익대 교육학 석사논문, 2008.

15) 안정희, 「정철의 「관동별곡」 교수-학습방안 연구」, 단국대 교육학석사논문, 2005.

16) 강기묘, 「정철 문학의 교육방법 연구」, 국민대 교육학석사논문, 1999.

적으로 지도할 교수-학습 방안으로 토의학습, 탐구학습, 현장학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사에 의하면 정철의 시가문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기 논의되고 있지만 가사에 치우쳐진 경향이 있으며 정철 시가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들도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된 송강 정철의 시가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들 역시 거의 대부분 가사 문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철의 시조 교육에 대한 논의도 적은 편이며 「훈민가」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그동안 문학 교육에서 정철의 문학을 ‘가사’에 치중하여 학습시키고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철의 시조 문학의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고 교육적 의의를 탐색해 보고 나아가 정철의 시조 문학의 학습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정철 시조의 교육 현황

1.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시조 수록 현황

현재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10학년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는 연차적으로 바뀔 계획에 있어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조 수록 현황 분석에 있어 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총론’이 지향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다. 여러 교육과정기를 거쳐 개발된 현행 국정 국어 교과서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어 교육학 연구의 최종 산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도 주기적으로 변했는데, 그에 따라 시조문학 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개정 고시되었고 2000학년도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¹⁷⁾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교 급별 목표가 내용상 큰 차이가

17)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및 해설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과정 정보서비스(www.kncis.or.kr) 원문 참조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초 중 고 학교 급별로 차이를 두었던 국어과 교육 목표를 일원화하였다. 국어과 교육의 핵심 과제도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 향상에 맞추었으며 ‘문학 영역의 강화’와 ‘언어 문화적 요소’를 교육과정에 수용하였다.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대한 태도’의 학습이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 문학 활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 특히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서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활동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인데,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를 통해 개별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표현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학교에는 8편의 시조 텍스트가 수록되었는데, 제 6차의 16편에 비하면 양적으로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더군다나 시조 갈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작품은 2편에 불과하다. 중학교는 15편의 시조가 수록되어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전체 작품 수는 늘었으나 현대 시조는 줄었다. 또 나머지는 도입과 마무리, 그리고 수준별 학습을 위한 보충, 심화 학습 자료로 많이 수용되었으며, 본시 학습 자료에 해당하는 작품은 4편에 해당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시조 4편, 현대시조 2편이 수록되어 이전 교육과정과 큰 변화가 없으나, 본시 학습 자료로 사용된 작품은 <어부사시사> 1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부차 학습 자료로 수용되었다.

현행 교육과정 ‘국어’ 과목에 수록된 시조 텍스트는 총 27편이지만, ‘쉽터 학습’을 제외하면 22편으로 제 6차의 30편에 비해 작품 수가 현저히 줄었다. 특히 시조 텍스트를 대단원 학습 속에 녹여 구성함으로써 본시 체제로 사용된 경우는 7편에 불과하다. 시조 텍스트를 다양한 활동 체제로 수록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고전 작품을 단순히 언어 기능 신장을 위한 도구로 판단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7학년 국어 교과서의 경우 『국어(상.하)』에 수록된 시조 작품은 모두

6편인데 (상)권에 5편, (하)권에 1편이 수록되었다. 이 중에서 이방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심가>, 황진이의 <어더 닉 일이여>는 단시조(短時調)로서 전문이 수록되었고, 나머지 작품은 모두 부분 수록되었는데 연시조인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본시 학습 자료로 제시한 작품은 <어부사시사> 1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준비 학습 내지, 문학적 표현 학습을 위한 ‘보충. 심화’ 학습 제재로 수용되었다. 현행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텍스트 실태>18)

연번	교재	작품명	작자	형식	시대	수록(수)
1	국어(상)	하여가	이방원	평.단	고	전문
2	국어(상)	단심가	정몽주	평.단	고	전문
3	국어(상)	가고과	이은상	평.연	현대	4(제 1,2,3,4 연)
4	국어(상)	어부사시사	윤선도	평.연	고	4(춘4, 하2, 추1, 동4)
5	국어(상)	어더 닉 일이여	황진이	평.단	고	전문
6	국어(하)	자모사(慈母思)	정인보	평.연	현대	2(제 12,16수)

제 7차 교육과정의 시조 텍스트 수록 작품 수를 그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제 6차 교육과정의 3편보다는 양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본시 학습에 사용된 시조 작품은 사실상 「어부사시사」가 유일하다.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하여가」와 「단심가」는 3단원 보충학습 활동에 함께 실려 있었다. 3단원은 다양한 표현과 이해 단원으로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의 중요성을 익히는 학습목표로 구성된 단원으로 「봄·봄」과 「봉산탈춤」을 소단원에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보충학습에서 「하여가」와 「단심가」를 읊어보고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조를 읊고 그 표현을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시조’라는 장르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다양한 표현과 이해를 공부하는 활동을 ‘시

18) 김덕현, 『시조문학 교육론』, 박이정, 2004, 115쪽.

조창'을 통해 알아보며 일종의 도구로써 두 시조를 인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본시 학습으로 사용된 「어부사시사」는 '6단원 노래의 아름다움'에 총 4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은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해하는 단원이었는데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진달래꽃」, 「유리창」, 「광야」 등 다섯 편의 작품을 수록해 놓았다. 「어부사시사」는 계절별로 한수씩 총 4수의 시조가 실려 있었고 도움말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었다. 또한 날개에 어구의 풀이가 되어 있어 시조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10학년 국어 교과서를 통틀어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본문의 시조인 만큼 '시조'라는 장르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교과서 자체적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고려가요인 「청산별곡」과 현대시 3편을 함께 배우는 만큼 그 작품들과 비교하여 시조 문학만의 특징에 대해 학습 할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황진이의 시조는 「어부사시사」의 학습활동 중 '혼자하기' 부분에 활동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황진이의 시조 '어더 닻 일이여~'와 「어부사시사」의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고 그 특징이 노래의 아름다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보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 목표인 문학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요소를 생각해 보기 위해 만들어진 활동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시조 수록 현황을 10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단원에 수록된 시조들이 학습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시조 작품들이 작품 내용이나 시조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 특정 목표와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상 교과서에 각 장르별 문학이 적정 비율로 수록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실이다. 무조건 많은 작품의 시조를 수록하여 학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른다. 따라서 학습활동이나 보충·심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

에게 다양한 시조를 소개하고 감상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작품의 시조를 학습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본시에 학습되고 있는 시조 작품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내용학습과 함께 시조라는 문학 장르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본시학습에서 총 4수를 수록하여 노래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구성요소와 기능을 이해하는 목표로 교육되고 있다. 정철의 시조의 경우 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한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국민공통기본과정’이 아닌 선택 과목인 ‘문학’과목에서 18종의 교과서를 통해 각 교과서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 별로 수록 현황과 교육 실태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18종 문학 교과서의 정철 시조 교육

『송강가사』에 수록된 시조 작품의 수는 80수¹⁹⁾에 이른다. 「훈민가」 16수를 제외하더라도 64수에 이르는데 그 중 7차 교육과정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정철 시조의 수는 「훈민가」를 포함하여 고작 4편에 지나지 않는다. 송강 정철의 시조의 수록 실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7차 교육과정 18종 문학의 정철 시조 수록 실태>

작품명	형식	수록횟수
훈민가	평시조, 연시조	7

19) 심재완의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에는 각종 문헌에 정철의 작이라고 표기된 작품이 모두 109수에 달한다. 그러나 본고는 송강가사(성주본)에 수록된 80수 중 타인의 작품이 분명한 2수를 제외한 78수와 송강가사(이선본)에만 수록된 3수 등을 첨가하여 모두 80여수를 정철의 작품이라고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철 시조 연구자들에 의해 적게는 80수에서부터 89수에 이르기까지 작품 수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재 너머 성권룡 집의	평시조, 단시조	5
내 마음 베희 내어	평시조, 단시조	1
장진주사	사설시조	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철의 시조 중에는 「훈민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록 빈도를 보이고 있다. 총 7번의 수록 빈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는 ‘재 너머 성권룡~’이 5번의 수록 빈도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높게 수록되어 있다. ‘내 마음 베희 내어~’와 사설시조 ‘장진주사’는 각각 1번의 수록을 보이고 있다.

18종 문학 교과서 중 정철의 시조를 수록한 교과서는 총 10종으로 본문으로 수록되어 있는 출판사도 있었고, 학습 활동이나 예비학습의 도구로 작품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10종 교과서의 송강 정철의 시조 작품 수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훈민가

교과서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단계	텍스트 수용의 주안점 (중심교수, 학습 내용)
교 학 사	上II-2 문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문학작품을 수용자 입장에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단원의 길잡이 (미리해보기)	·<훈민가>를 모범글로 하여 재구성하기
디 딤 들	上I-2 문학의 기능과 가치	·문학이 인식적, 미적, 윤리적 기능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은 개인의 삶을 고양시키며,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이 가치의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
	소단원 도입	·이 작품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가치 알기 ·현대적 관점에서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가치 평가하기

	上 Ⅲ-1 서정 문학의 수용과 창작	·작품의 주제와 정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정리학습	·시적 화자 알기 ·이 시조의 시적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알기 ·시적 화자의 표현 의도와 대상에 대한 느낌 말하기
금성	下 Ⅱ-◆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한국 문학의 개념과 인식적 특성을 안다.
	보충 심화 활동 (보충 학습)	· 주제 파악하기 · 전승된 작품과 글로 전파된 작품의 유형에서 시조의 특징 알기
	下 Ⅲ-2 민족 문학의 성장(고려 시대의 문학)	이 시기 한국 문학의 갈래와 작품을 안다.
	학습 활동 (목표학습)	<생쥐와 족제비 이야기>, <고양이와 까마귀 이야기>를 읽고 정철의 <훈민가>를 감상한다면 어떠할지 말하기
문원각	上 1-3 문학의 기능과 가치	· 문학의 세 가지 기능을 안다. · 문학의 세 가지 기능의 관계를 파악한다.
	학습활동(적용학습)	· <훈민가>를 예로 하여 문학의 교육적 기능 설명하기 · <훈민가>를 읽고 오늘날 관점에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 말해보자.
지학사	下 I-2 조선시대의 문학	· 조선시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와 내면적 원리를 이해한다. · 조선시대 문학의 갈래와 특질을 이해한다. · 조선시대 문학의 전형적인 작품들을 수용하고, 그 정서와 지향을 이해한다.
	본시 학습 활동	· 상징적 의미를 가진 표현 찾기 ·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이유를 유교적 자연관에서 찾아 설명하기 · 시어의 상징 의미 말하기 · 홍량을 위로하는 편지쓰기 · 홍량 시조에서 작가 심정을 대표하고 있는 것 말하기 · 인용된 두 연에 담긴 주제 말하기 · <훈민가>의 교훈을 전달하는 내적구조 설명하기 · 화자의 중심 정서 말하기 · 사설시조 중장이 늘어난 표현을 일반적인 감정 표현 방식과 연관해서 설명하기

먼저 교학사의 경우 교과서 상권에 대단원인 II단원 ‘문학의 수용과 창작’ 중 3단원 ‘문학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훈민가」를 수록하였다²⁰⁾. 교학사 교과서의 ‘미리 해 보기’라는 예비학습 부분에 정철의 시조 「훈민가」 중 ‘오늘도 다 새거다~’와 그 시조를 응용한 창작 시조 하나를 함께 실어 정철의 시조를 재구성해보게 하는 활동을 구성해 놓았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인 ‘문학 작품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목표에 맞추어 재구성 측면에서 이러한 예비학습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에게 시조라는 문학 장르가 낯설고 어려운 것이 아닌 일상생활의 소재를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장르라는 것을 알리는 데 효과적인 활동이다.

디딤돌 上 교과서는 I문학의 본질 이라는 대단원 중 두 번째 소단원인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훈민가」가 실려 있다. 문학의 기능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원에 정학유의 「농가월령가」가 본문으로 수록되어 있어 월령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정철의 시조 「훈민가」는 본문을 학습 한 후 ‘시야 넓히기’라는 보충학습 부분에 실려 있다. ‘오늘도 다 새거다~’, ‘비록 못 니버도 닌미 ~’, ‘雙六將碁(쌍륙장기) 흐지 마라~’ 이렇게 3수의 시조가 실려 있고 문학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말해보자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활동은 「훈민가」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쓰였다는 문학 기능적인 측면의 특징을 살려 앞의 본문인 「농가월령가」와 비교하여 문학의 기능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은 「훈민가」가 교훈 시조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적합한 활동이 될 수 있다.

또한 III 단원인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1)’에서도 「훈민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는 중단원 1의 ‘서정 문학의 수용과 창작’ 단원 중

20) 구인환 외, 문학 上, 교학사.

주제와 정서에 대한 소단원의 도입부에 제시된 예비학습 활동으로 「훈민가」를 실고 있다. ‘이고 진 더 늘그니~’ 시조를 통해 시조의 시적화자와 느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묻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정철의 시조는 시조라는 문학 장르의 차원이나 「훈민가」 갖는 의미와 내용이 아닌 서정 문학이 갖는 주제와 정서를 알아보는 목표로 작품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훈민가」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을 생각해 볼 때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는 목표와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이러한 활동에는 정철의 풍류와 흥취가 느껴지는 시조를 수록한다면 ‘서정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목표를 구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문원각 上 교과서는 대단원 ‘I 문학의 특성’ 단원 중 세 번째 중단원인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훈민가」 중 ‘이고 진 더 늘그니~’가 실려 있다. 문학의 가치를 설명하는 설명문이 본문으로 실린 후 적용학습을 통해 「훈민가」가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설명문을 통해 문학의 가치 지향성과 문학에 투영된 작가의 가치에 대해 배운 학생들에게 실제 문학 작품을 통해 그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본문의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금성 출판사는 ‘II.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라는 대단원에 「훈민가」를 수록하고 있다. 이 단원은 한국 문학의 특성, 한국의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 세계 속의 한국 문학이 나아갈 길 등 4가지 주제를 소단원으로 구성해 각 단원의 주제에 맞는 설명문을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단원의 마무리 부분에 보충·심화 활동에 시조 「훈민가」의 ‘아버이 사라진 제~’가 실려 있다. 이 활동은 한시, 민요, 시조, 현대시 등의 작품을 수록한 후 앞서 배운 이론을 적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 놓았다. 「훈민가」내용에 해당하는 활동은 없었고 ‘말로 전승되는 작품 찾기’ 처럼 수록된 작품 전체를 앞서 배운 이론을 활용하여 적용

할 수 있는 활동이 주로 실려 있었다.

또한 'Ⅲ. 민족 문학의 흐름'이라는 대단원 중 '2. 민족 문학의 성장'에도 시조 「훈민가」 중 '늪으로 삼긴 등의~'가 실려 있다. 이 단원에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본문으로 실린 후 「훈민가」와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는 목표학습으로 정철의 시조가 실려 있다. 민족 문학의 성장이라는 단원의 이름에 맞춰 세계 문학을 본문에 싣고, 그 내용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훈민가」를 학습활동에 실었다. 하지만 금성에서 실린 「훈민가」는 모두 시조라는 장르나 「훈민가」의 내용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 활동의 소재차원에서 「훈민가」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시조가 수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 교과서는 'Ⅴ. 문학의 변동과 문학의 대응'이라는 대단원 속에 '시대 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창조'라는 소단원 안에 학습 활동으로 「훈민가」 중 '아버이 사라신 제~'가 실려 있다. 소단원 본문에 실려 있는 박연구의 수필 '하나의 풍경'을 정철의 시조와 주제면의 연관성에 따라 주제 형상화와 그 과정을 정철의 시조와 비교하여 수필의 주제를 수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효도라는 수필의 주제에 맞추어 정철의 시조를 활용하였고 작품에 따라 같은 주제가 다르게 형상화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다. 「훈민가」의 주제와 잘 부합되며 수필이라는 다른 장르와 비교하여 학습되어 문학의 장르적인 차원에서 표현되는 양상이 다른 점을 학습하기에도 적합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학사는 「훈민가」를 유일하게 본문으로 제시하여 학습하고 있는 교과서로 'Ⅰ. 한국 문학의 특질'이라는 대단원 중 '2. 조선시대의 문학'이라는 중단원을 통하여 「훈민가」를 수록하였다. 이 단원은 조선 시대 문학의 갈래별 전개 양상에 대해 분류하여 실어 악장인 「용비어천가」, 가사인 「속미인곡」, 소설인 「심청전」의 갈래와 함께 시조 다섯편을 수록하고 있다. 「훈민가」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 시조는 작자 미상의 '삼동에 비

옷 입고~’, 성혼의 ‘말업슨 청산이오~’, 홍량의 ‘뫓버들 같히 것거~’, 작지 마싱의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등으로 「훈민가」 중 ‘형아 아이야~’,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2수와 함께 실려 있다.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단원인 만큼 내용 학습에 대한 부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두 연에 담긴 주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이나 내적 구조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시조라는 장르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져있어 사설시조의 표현방식에 대해 알아보거나 ‘기녀’라는 특수 계층의 시조의 창작, 향유 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시조와 대비되는 훈민가만의 특징이나 우수성에 대해서는 따로 학습이 되고 있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지금까지 총 5종의 교과서를 통해 시조 「훈민가」가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훈민가」를 본문에 수록하여 본시 학습으로 이용하는 교과서는 5종 중 ‘지학사’가 유일했다. 이것은 국민공통 기본과정에 따라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시조 「훈민가」 수록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따라서 교과서들은 「훈민가」를 보충학습이나 또는 예비학습에 인용할 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학습을 다루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훈민가」 역시 보충 활동의 자료로 인용되었을 뿐 본문으로 내용이 학습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훈민가」가 총 16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번 다루어졌다는 이유로 ‘문학’ 과목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특히 교훈시조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학습의 가치가 있는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시조의 내용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조명하여 학습자들에 얼마든지 다른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훈민가」 이해시킬 수 있음에도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재 너머 성권룡 집의~

교과서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단계	텍스트 수용의 주안점 (중심 교수, 학습 내용)
디딤돌	上 I-1, 문학의 특성	·문학이 언어를 매체로 하는 예술의 한 형태임을 안다. ·문학이 인간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이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구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
	준비학습	·김홍도의 '기우선인도(騎牛仙人圖)이라는 그림과 정철 시조를 비교하여 표현 매체,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아름다움 말하기
천재교육	上 III-2 시의 언어와 운율	시의 언어적 특질을 이해할 수 있다.
	본시 학습	·세 시조가 지니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 ·세 시조의 시적 상황과 정서 알아보기 ·시조창을 듣고 있을 때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말하기
블랙박스	下 IV. 국어 문화와 문학 문화	근대 여명기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근대 여명기 문학의 특징과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삶을 이해한다.
	설명문 예시 작품	예시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질 가운데 해학과 풍자의 전통 이해하기
태성	下 VII-3 민족 문학과 세계 문학	한국문학과 세계 문학의 보편성(특수성)에 대해서 안다.
	보충학습	두 작품을 통해 평시조에 나타난 선비정신과 풍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훈민가」 다음으로 수록 빈도가 높은 ‘재 너머 성권릉 집에~’는 총 4종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다. 먼저 디딤돌은 上권에 대단원 ‘I.문학의 본질’ 단원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문학의 특성을 소개하는 소단원에 앞서 준비학습으로 시조를 활용하였다. 정철의 시조와 김홍도의 ‘기우선인도(騎牛仙人圖)이라는 그림을 비교하여 표현 매체,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아름다움

말하는 활동으로 문학이란 장르적 특성을 비교학습을 통해 각인시키고 있는 활동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매체와 문학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문학에서의 표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철의 시조와 함께 수록된 그림 덕분에 학습자들은 어렵지 않게 '재 너머 성권룡에~'의 시적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재교육은 上권에 'II. 시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단원에서 위 시조를 수록하였는데 '3. 시의 언어와 운율'이라는 중단원 속에 본시 학습 본문으로 시조 3편이 실린 가운데 하나이다. 박인로의 시조 '동기로 세 몸 되어~'와 작자 미상이 시조 '귀쪼리 저 귀쪼리~'와 함께 시조 3편을 실어 놓고 시조라는 장르의 형식과 조상들의 삶과 생각을 음미하는데 학습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 시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석이 함께 수록되어 작품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더불어 시조라는 문학 장르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참고 자료도 실려 있었다. 세 시조의 형식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게 하는 활동과 정철의 시조에 드러난 풍류를 느껴보고 이런 정서가 나타나는 시조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재 너머 성권룡 집에~'가 가지고 있는 풍류적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조창을 구해 들어보거나 모듬별로 시조를 지어 보는 활동이 들어 있어 시조라는 문학 장르에 대한 학습을 여러 측면에서 시도하고 있다.

블랙박스는 'VIII.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이라는 대단원 중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이라는 소단원의 본문인 설명문 속에서 '재 너머 성권룡~'을 인용하여 실고 있다. 이 본문은 한국 문학의 특질을 설명하는 설명문으로 한국 문학의 미적 특질중 하나인 '멋'을 설명하며 예시 작품으로 이 시조를 삽입하였다. 작품의 옆 날개에는 시어의 풀이가 되어 있어 시의 내용을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시조가 흥취와 풍류적인 성격이 뛰어난 작품인 만큼 설명문 안에 이해가 쉽도록 적절한 예시 작품으로 쓰였다.

마지막으로 ‘태성’은 ‘Ⅶ. 한국 문학의 특질’ 단원에 보충학습으로 정철의 시조를 수록하였다. 이항의 ‘도산십이곡’과 정철의 ‘재 너머 성권룡~’을 나란히 실어 놓은 후 두 시조에서 각각 나타난 선비정신과 풍류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이었다. 이 교과서 역시 정철의 시조를 우리 문학의 특질 중 풍류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4종의 교과서에 정철의 시조 ‘재 너머 성권룡~’을 다루고 있지만 본시 학습으로 본문에 실린 것은 단 한권뿐이었다. 정철의 시조 중 ‘재 너머 성권룡~’은 그 풍류와 흥취가 어떠한 시조 작품보다 뛰어나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또 시조라는 장르를 가르침에 있어 다양한 주제의 시조들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시조 문학의 다양한 주제와 표현을 보여 주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18종 교과서 중 오직 한 종의 교과서에서만 본시 학습으로 제시한 점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3) 장진주사

교과서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단계	텍스트 수용의 주안점 (중심교수, 학습내용)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上-Ⅲ-1 시의 이해	시적화자, 대상, 상황, 주제 등을 이해한다. 운율과 심상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이해한다.
	생각열기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 알기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이 어떠한지 알기

정철의 시조 「장진주사」는 18종 문학 교과서 중 딱 한 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上권에 ‘Ⅲ. 시의 수용과 창작’ 단원 중 ‘시의 이해’라는 소단원에 실려있다. 이 단원은 시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 수용화 하며 나아가 시를 창작하는데 학습 목표를 두고 있는데 ‘시적 주체와 시적 상황’, ‘시의 운율과 심상’, ‘시의 주제와 시적 표현’ 등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각 주제별로 간단한 이론 설명과

그 설명에 뒷받침이 될 만한 작품을 두 작품씩 싣고 있다. 「장진주사」는 ‘시의 주제와 시적 표현’이라는 주제에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장진주사」의 주제 구현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더불어 작가가 주제 의식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작품을 외형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정철의 시조 「장진주사」의 내용과 구성 또 화자의 심리상태 등을 이해하며 시의 주제와 시적 표현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학의 장르가 ‘시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적으로 제시만 되어 있어 시조로써의 「장진주사」를 학습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나 「장진주사」가 가지고 있는 주제적 특성과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시조가 수록되어 있는 단원과의 연계성은 적합해 보인다.

4) 내 마음 버혀 내어

교과서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단계	텍스트 수용의 주안점 (중심교수, 학습내용)
대한 교과서	下 V-1 한국 문학의 특질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한다. 한국문학의 갈래와 고유한 특질을 이해한다.
	수용의 내면화	속미인곡을 이 시조와 비교하여 가사 문학이 지닌 특성 알아보기

정철의 시조 ‘내 마음 버혀 내어~’는 18종 문학 교과서 중 ‘대한 교과서’에 실려 있다. ‘V.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라는 대단원 속에 ‘한국 문학의 특질’이라는 소단원에 한국 문학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군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시조 ‘내 마음 버혀 내어~’는 본시 학습으로 수록된 정철의 가사 「속미인곡」의 수용학습으로 가사와 시조를 비교학습하고, 작가의 계층과 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외재적 관점에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활동이다. ‘내 마음 버혀 내여~’는 정철의 시조 중에서 님을 그리는 애뜻한 감성의 시조로 대표적인 유형의 시조는 아니다. 다만 「속미인곡」의 작가가 정철이고, 가사와 시조 문학을 비교하는 활동을 만들기 위해 정철의 시조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에서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 시조를 다뤄 다양한 시조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작품의 내재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다.

지금까지 정철의 시조들이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황과 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훈민가」의 경우 문학의 수용, 문학의 기능과 가치,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으로 총 3가지 대단원의 유형 속에 수록되어 있었다. 재구성 활동이나 「훈민가」를 통해 문학의 기능과 가치를 알아보는 활동, 시조 문학을 배우는 활동 등의 활동으로 학습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시조 「훈민가」가 적지 않은 편수로 18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본문 학습이 되고 있는 교과서는 단 한 종에 불과하여 사실상 수록 현황의 빈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교과서 속에서 정철의 「훈민가」라는 시조를 배운 적이 있다하여도 그 시조의 창작 동기나 세부 내용, 교훈 시조로써의 특징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재 너머 성권룡의~’ 경우도 총 4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빈도수가 높은 편이며 문학의 본질, 시의 수용과 창작,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등 다양한 대단원 안에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조 역시 본문 학습으로 실린 것은 단 한 종의 교과서였고 「훈민가」와 달리 시의 언어와 운율이라는 측면에서 시조 3편을 실어 학습하는 가운데 한 작품으로 ‘재 너머 성권룡의~’를 실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시조 ‘재 너머 성권룡을~’을 시조라는 갈래적인 측면이 아닌 시의 언어 미학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시의 내용과 특징상 적절한 텍스트의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수록 빈도와 분량에 대해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장진주사」와 ‘내 마음 버혀 내어~’는 각각 한 종의 교과서에 ‘시의 수용과 창작’과 ‘한국 문학의 특질’ 단원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장진주사」는 ‘시의 주제와 시적 표현’이라는 단원의 설명문 본문에 예시 시조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내용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 마음 버혀 내어~’의 경우는 가사 「속미인곡」과 함께 비교 활동을 하기 위해 수록되어 있어 학습 활동의 자료로 쓰이고 있다. 정철의 시조가 「훈민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 위의 두 시조가 수록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작품들이 여러 방향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은 정철의 시조 문학의 교육에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수록 빈도가 약하며 네 가지 시조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Ⅲ 정철 시조의 교육적 의의

시조 문학은 타 장르에 비해 민족 문학으로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우리 민족 교유의 사상과 정서, 가치관이 시조의 간결한 형식 속에 자연스레 표출되고 있고 또 향유층이 넓었다는 점에서 국민 문학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조 속에 담긴 민족의 전통적 사상을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기르는 데 있어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조가 주로 화자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 하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언어, 표현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전 문학의 한 갈래이면서도 오늘날에도 창작되고 있는 문화 양식이라는 점에서 현대시와 상등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자료가 된다.²¹⁾

이러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조 문학 가운데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시조가 갖는 교육적 의의는 무엇인지 작품을 3군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고에 수록된 정철의 모든 시조는 『송강가사²²⁾』 성주본²³⁾에 수록된 시조들이다.

1. 훈민 시조 - 생활 교육의 면모

「훈민가」는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던 1580년 정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강원도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화하기 위하여 지은 작품이다. 이러한 훈민교화의 시조는 특히 유교적 윤리 사상을 교술 하여 풍속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다. 훈민 교화류에 들 수 있는 작품으로는 18수가 있는데 이는 그의 시조 작품 전체 중 약 2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그

21) 이종관, 「고등학교 문학에 수록된 시조의 지도 방법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 2002.

22) 조선 중기의 문신 송강 정철의 가사와 시조를 수록한 2권 1책의 시가집.

23) 송강가사의 목판본은 황주본, 의성본, 관북본, 성주본, 관서본 등 다섯 종이 있었다 하나, 그중 의성본과 관북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성주본」은 정철의 5대손인 관하가 성주 목사를 지내던 1747년에 성주에서 간행된 책으로 송강가사집의 대표되는 목판본이다.

중에서 연시조로 된 훈민가 16수는 정철의 시조 중에서 그 제작 연대와 동기가 비교적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유일한 것이다.

「훈민가」는 송나라 신종 때 진양이 지은 선거권유문(仙居勸誘文)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하지만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고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한 것이다. 곧 훈민가에 새로 넣은 것은 군신(君臣), 장유(長幼), 봉우(朋友)이고, 또 전자의 무학도박과 무호쟁송은 시조 1수로 나타내어 진양의 18수를 16수로 정철은 마무리 했다.

이렇게 정철이 「훈민가」를 지은 의도는 유교적인 윤리관에 근거하여 백성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명령조가 아니라 정감에 호소하는 어법으로 표현하여 설득력을 주었다.

「훈민가」 16수의 제명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부의모자 ② 형우제공 ③군신 ④ 자효 ⑤ 부부유은 ⑥ 남녀유별 ⑦자제유학
- ⑧향여유예 ⑨장유유서 ⑩봉우유신 ⑪ 빈궁우환친척상구 ⑫ 혼인사상인리상조
- ⑬무타농상 ⑭무작도적 ⑮무학도박무호쟁소 ⑯반백자불부재

위의 주제를 담고 있는 「훈민가」 16수는 다음과 같다.

1)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질가
하늘 ㄹ튼 ㄹ업슨 은덕을 어딴다혀 갑스오리

이 시조는 「훈민가」의 첫 작품으로, ‘부의모자(父義母慈)를 노래한 것이

다. 부모는 어린애에 대하여 신과 같은 존재요,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다. 나를 낳아서 정성으로 키우고 한없이 사랑해 주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효의 윤리로 표현되었다.

2)

님금과 백성과 스이 하늘과 싸히로되
내의 설운 일을 다 아로려 헉시거든
우리들 슬진 미나리를 혼자 었디 머그리

이는 군신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밝힌 노래이다. 임금과 백성의 처지가 하늘과 땅처럼 높고 낮지만, 임금이 백성의 고충을 다 알고자 하는 애민심을 가졌으니 백성들도 정성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임금이 넓은 은혜를 내림에 있어 신하들이 응당 그에 보답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백성들에게 군주를 받들어야 하는 백성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3)

형아 아이야 네 슬흘 먼저 보와
뉘손되 타나관되 양직조차 ㄱ뜯손다
흔젓 먹고 길러나이셔 닷 ㅁ음을 먹디 마라

위의 시조는 형제의 우애를 강조한 것이다. 같은 부모의 피와 살을 물려받아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으며,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 서로 다른 마음을 먹지 말고 서로 우애 있고 공경하며 지내라는 뜻을 노래하였다.

4)

아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흐여라
디나간 휘면 애롭다 엇디흐리
평싱애 고태 못홀 일이 이썸인가 흐노라

이는 자효를 노래한 것으로, 살아계실 동안에 부모 공경을 열심히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 살아계시는 동안 정성껏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다.

앞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말하는 첫 번째 시조와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좀 더 사실적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적 최선을 다해 모시지 않으면 지나간 뒤에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구절이 독자로 하여금 더욱 구체적으로 와 닿는다. 정철의 「훈민가」는 바로 이처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이 주로 쓰인 것이 특징이다.

5)

흔 몸 둘해 눈화 부부를 삼기실샤
이신 제 흠씩 늙고 주그면 흔딤 간다
어디셔 망녕의 써시 눈흘기려 흐느니

부부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를 가르친 부부유은을 노래한 것이다. 부부는 원래 한 몸이 둘로 나누어 태어난 것이므로, 살아 있을 때는 함께 늙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셔 망령된 사람들이 부부간에 눈 흘기며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가 하는 뜻으로 부부가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다.

이 작품은 어조가 매우 고압적인데 특히 ‘눈 흘기려 흐느니’에서는 비난

의 태도마저 보인다. 이 점은 「훈민가」의 다른 작품들이 긍정적인 행위들을 신분적인 평등관계를 통해 청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하여 도덕적 우월성을 견지하고 있는 화자가 부정적인 화자에 대해 금지의 강제를 보임으로써 야기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풍자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⁴⁾

6)

간나히 가는 길흘 스나히 에도드시
스나히 네는 길흘 계집이 척도드시
제 남진 제 계집 아니어든 일흠 못디 마오려

남녀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노래했다. 길에서 모르는 남녀가 만나면 서로 길을 피해 가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니면 서로 이름을 물어 말을 붙여 서로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즉 남녀유별을 노래한 시조이다. 남녀유별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여자가 가는 길을 남자가 돌아가는 행동과 남자가 가는 길을 여자가 비켜 피해 돌아가는 행동, 그리고 이름을 묻지 않는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초-중-종장에 각각 다른 장면이 제시됨으로써, 장면의 계속적인 이동에 의해 동적인 느낌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작품 형상화의 바탕에는 남녀 관계에 있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정결한 마음이나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송강의 생각으로 연분은 인간이 좌지우지 하는 소관사가 아니며 이는 하늘의 뜻이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제 남진 제 계집 아님에도 이름 묻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부부와 남녀 간의 도리를 밝힌 신뢰를 강조하는 윤리적 숭고미를 드러내고 있다.²⁵⁾

24) 박홍섭, 「송강 시조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25) 윤명옥, 「송강 시조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8.

7)

네 아들 효경(孝經) 넓더니 어도록 비웠느니
내 아들 소학(小學)은 모르면 므출로다
어니제 이 두 글 비화 어딜거든 보려노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어 훌륭히 기르도록 권장한 노래이다. 자식들이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중함 덕목을 가르치는 효경과 소학을 공부시켜 효성스럽고 어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것은 정철이 '배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누구나 글을 배워야 하며 특히 효경과 소학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역시 포괄적인 배움을 넘어 구체적인 덕목을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8)

마을 사람들아 올흔일 헉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올치웃 못헉면
므쇼를 갖곳갈 씩위 밥 먹이나 다르라

마을 사람들에게 예절 바르고 옳은 일을 하며 살도록 가르친 노래이다. 사람이 되어 옳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말과 소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유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함을 말하고 있다.

위의 시조에서 '옳은일'은 단순히 '착한일'의 의미를 넘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간에 화목하고, 정직하고 노름하지 말 것 등 사람끼리 사는데 필요한 옳은일을 내포한다. 이러한 옳은 일하기를 권고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당시 사회현실이 어떠했는가를 상상해 보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인정이 타락한 상황의 변화일 것이다. 당시 사회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고발정신을 엿볼 수 있는 풍자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9)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 댕 겨시거든 막대 들고 조츠리라
향음주 다 파흔 후에 되셔 가려 흐노라

평상시에 어른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친 노래이다. 어른이 일어서실 때 팔목을 잡으면 두 손으로 받쳐 부축하고, 어른이 외출하시는 일이 있으면 지팡이를 들고 뒤를 따르며, 향음주례에 모셔 왔으며 끝난 뒤 도로 모셔가는 등 젊은이들이 정성스럽게 노인들을 모시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 시조에도 역시 팔목, 막대, 향음주 등의 일상어를 통하여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윤리 도덕적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훈민가 전반에서 나타나는 시적 표현의 하나이다.

10)

늪으로 삼긴 똥의 벳긱티 유신희라
내의 윈 일을 다 널오려 흐노매라
이 몸이 벳님곳 아니면 사름되미 쉬올가

친구의 소중함을 가르친 노래이다. 나의 잘못을 진정으로 충고해 주는 이는 친구뿐이니, 친구가 아니라면 내가 어찌 모든 잘못을 고쳐 어진 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다. 벳으로 인하여 허물을 서로 바로잡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노래하여 벳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다.

11)

어와 더 족하야 밥 업시 엇디 홀고
어와 더 아자바 옷 업시 엇디 홀고
머흔 일 다 닐러스라 돌보고져 흐노라

밥업는 조카와 옷없는 아주머니 사이의 대화에서 가난과 고통, 우환이 있을 때 친척 간에 어려움을 도와주기를 권장한 노래이다. 조카와 아재비가 서로 곤궁함을 염려하며, 힘든 일이 있어 다 말하면 돕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친척 간에 우환을 걱정하고 어려움을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미풍양속을 이루도록 가르친 것이다. 종장의 구절을 통해 작가의 마음이 몹시 인정적임이 느껴진다. 한편 백성의 구휼이라는 지배자의 통치 가치를 표방하고 있기에 유교적 덕목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숭고미를 드러내고 있다.²⁶⁾

12)

네 집 상스들흔 어도록 출호순다
네 쫄 셔방은 언제나 마치느순다
내게도 업다커니와 돌보고져 흐노라

장사(葬事)나 혼인(婚姻) 때에 이웃이 서로 도와야 함을 가르친 노래로 시조 속의 화자와 청자는 이웃에 사는 너와 나로 설정되어 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상사가 언제 들었는지 딸이 혼인할 때가 되었는지도 알고 있다. 초장과 중장에서 '너의 집 장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네 딸 혼인은 언제 치르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이웃의 대소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서로 도우면서 살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이 추상적인 구호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 설정과 그에 따

26) 윤명옥, 「송강시조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8.

른 적절한 언어를 통해서 백성들의 공감을 유도해 내기 때문이다.

13)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오 가자스라
내 논 다 밷여든 네 논 점 밷여 주마
올 길히 썩 빠다가 누에 먹켜 보자스라

아침 일찍 논에 나가 김을 메고, 돌아오는 길에는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먹이는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때를 놓치지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권한 노래이다. 이것은 생업에 힘쓰기를 권장한 노래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이웃에 사는 농사꾼으로 설정되어 농사일과 누에 먹이는 일을 서로 도와가며 하자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언어 또한 시적 화자와 청자의 생활에 알맞게 ‘호미, 논, 뽕, 누에’ 등의 구체적인 서민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세계는 당시 서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이다. 「훈민가」가 유교 이념을 전달하기 위한 공리성을 띤 작품이면서도 생경하고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당시 평민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풍속도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민들의 문제를 평민들의 사고와 어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비록 못 니버도 녹미 오솔 앓디 마라
비록 못 머거도 녹미 밥을 비디 마라
흔적곳 찍 시를 휘면 고터 벗기 어려우리

도적질을 하지 말고 빌어먹지 말 것을 가르친 노래이다. 한번 나쁜 버릇이

들면 다시는 고칠 수 없으니, 비록 못 입고 못 먹어도 남의 것을 훔치거나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시조 역시 도적질은 옳지 못하니 금하라는 원론적인 내용이 아닌 ‘못 입어도’ 또는 ‘못 먹어도’남의 것을 뺏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그 이유는 버릇이 들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적질이 남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발상에서 나아가 나쁜 짓을 계속 하다 보면 버릇이 되고 이것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나쁜 짓을 시작하지 말라는 발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남에게 해를 입히기에 앞서 내 자신을 위해서 도적질과 같은 옳지 못한 행위를 금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청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훈민가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15)

상녹장귀 헉디 마라 송스 글월 헉디마라
 집배야 르슴으며 늬이 원슈 될 줄 었디
 나라히 법을 세우샤 죄잇는 줄 었디 모르는다

도박을 하지 말고 소송을 좋아하지 말 것을 가르친 노래이다. 도박은 꽤가 망신하기 쉽고 송사는 남과 원수가 되기 쉬운 것이다. 도박과 소송을 즐기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기를 권하는 위의 시조는 정철의 훈민가가 백성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예와 도를 지키는 일을 권장한다’는 이론적인 내용이 훈민가에서는 이처럼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목민관 생활을 했던 정철이 생활 속에서 직접 느꼈던 체험들을 통해 시조가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의 옷을 빼앗고 먹을 것을 빼앗는 행위, 도박과 송사 등이 ‘옳지 못한 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닌 일일이 풀어 설명하여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정철의 훈민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16)

이고 진 더 늘그니 짐 프리 나를 주오
나는 점엿찌니 돌히라 무거올가
늘거도 설웨라커든 짐을조차 자실가

노인을 공경할 것을 가르친 노래이다. 길에서 짐을 이고 진 노인을 만나 그 짐을 대신 쳐 주겠다고 자청하는 젊은이의 말을 빌려 노래하였다. 젊은 나는 돌도 무겁지 않지만 기력이 쇠한 늙은이가 어찌 무거운 짐을 이고 질 수 있겠는가 하며 늙은이를 공경해야 하는 이치를 설명하였다.

이 시조 역시도 ‘노인을 공경하라’는 일반적인 유교적 덕목을 늙은이의 짐을 들어주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의 입장에서 젊기 때문에 돌도 무겁지 않다는 발상을 통해 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공경하고 도와야 하는지를 쉽고 친근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종장에서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들겠냐는 표현은 해학적으로도 느껴진다.

이처럼 쉽고 일상적인 상황과 표현을 통해 ‘노인공경’이라는 딱딱한 유교적 덕목이 시조로 표현되어 있다.

「훈민가」의 문학사적 의의²⁷⁾를 찾는다면 먼저 강원도 도민의 교화를 목적으로 창작된 목적시라는 것, 둘째로 한 개인의 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본으로 활용되었다는 데 큰 점 마지막으로 명령이나 의법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위정자가 백성의 정감에 노래로서 호소했다는 점에 있다. 훈민가의 내용은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품행을 강조한

27) 이정자, 『시조문학연구론』, 국학자료원, 2003, 89쪽.

것으로 교훈성을 중시한 작품이다. 강원 도민에게 널리 부르케 하여 성정을 꾀하고, 더 나아가 윤리사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창작한 노래이기 때문에 다소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평도 있으나 일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취사선택한 쉽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 당시의 인정과 세태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 민족의 고유한 감정과 정서는 그 민족의 고유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훈민가」는 유교적 윤리관에 근거해 올바른 생활을 권한다는 주제를 표현하면서 청자인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훈민가」에서는 중국의 고사를 차용하거나 한문을 이용한 사실이 거의 없다. 어법에 있어서도 완곡한 명령이나 인간미가 느껴지는 청유의 형식을 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지은이가 통치자로서의 명령적 태도를 버리고 인간적으로 호소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시조의 목적이 유교적인 윤리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었지만, 작가 정철은 사대부 계층의 선형적인 가치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명령하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정감어린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제재들을 다룬 어떤 작품들보다도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28).

그 결과 「훈민가」는 훈민(訓民)을 목적으로 지어진 많은 시조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고 또 친근감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훈민가」의 문학적 특징과 가치들은 「훈민가」의 교육적 의의로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훈민가」는 주제 자체가 교훈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철이 강원도 백성들에게 당시에 지켜져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노래했지만 이 주제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들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 팽배한 개인주의와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예의범절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훈민가」가 담고 있는 주제들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를 공경하

28) 정재호, 장정수, 「송강가사」, 신구 문화서, 2006, 115쪽.

고, 형제지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며, 이웃을 돕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윤리 의식들이다. 더욱이 그러한 윤리 의식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문학의 ‘교화적 기능’을 생각해 볼 때 「훈민가」를 학습하는 것은 문학 교과 범위를 넘어 도덕적 교과의 학습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도 다 새것다~’와 같은 시조가 당시대에 이웃 간의 일을 서로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에는 사회 공동체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등 현대 사회에 맞게 「훈민가」의 의미도 재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훈민가」를 수록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많게는 2수에서 1수 정도의 시조를 싣고, 주제 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다. 「훈민가」의 시조가 각각의 독립적인 시조라고 볼 수 있지만 현대의 학습자들에게도 교훈이 될 만한 주제를 3~4수 정도 함께 실어 「훈민가」의 교훈적 의의와 그 주제의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은 문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훈민가」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질이 담고 있는 교육적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훈민가」는 일상어의 사용으로 표현의 사실성과 백성의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훈민가」는 창작 동기부터 유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용도 유교적 덕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훈민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훈민가」의 표현을 살펴보면 구체적이고 사실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철이 선비의 전유물인 문자와 동떨어진 평민의 교화를 위해 한문투의 케케묵은 낱말보다 평범한 일상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훈민가」특징은 시에서 ‘시어’가 갖는 기능에 대해서도 학습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훈민가에서 쓰인 정감어린 어휘를 찾아보고 이러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느껴지는 감정과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 들은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활동임과 동

시에 ‘시어’의 기능이라는 이론적인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2. 풍류·흥취의 시조 - 소박한 삶의 지향

정철이 살았던 16세기 후반기는 훈구파와 사림파간의 치열한 정치투쟁이 진행되면서 사림들의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이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다. 아울러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사림과 내부에서 당파가 형성되면서 서서히 당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철 역시 서인의 영수로서 치열한 당쟁의 와중에서 몇 차례의 진퇴를 거듭 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쟁기라는 험난한 시대를 살던 그에게 술은 일종의 안식처였다고 할 만하다. 즉 부조리한 정치현실에서 입은 상처를 달래고 울분을 삭일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호방한 풍류와 거침없는 창작의 촉매로 기능했을 것이다. 29)

그러한 까닭에 정철의 시조에는 유독 ‘술’이 소재로 쓰인 시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시조들은 정철이 즐겼던 풍류와 흥취가 그대로 묻어난다. 조동일은 정철의 시조는 풍류를 즐기는 감흥을 나타내고 마음의 바른 도리를 찾지는 않는 점에서 이황의 시조와 많이 다르다³⁰⁾고 했다. 산수를 노래할 때에도 경치에서 흥취를 찾거나 하고 그 배후에 있는 이치를 생각하지 않았다. 한자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고유어를 몇 마디 써서, 길고 복잡한 한문 논설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정철의 풍류와 흥취가 느껴지는 시조들이다.

정철의 시조 중 이러한 ‘풍류와 흥취’의 성격을 가진 시조들은 문학 교육의 목적³¹⁾ 중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29) 이형대, 「정철 시조의 감정 표현 양상」, 한국 시가연구, 2009.

30) 조동일, 제3판 「한국문학통사 제 2권」, 지식산업사, 2005, 354쪽.

31) 제 7차 국어과정의 문학 과목의 목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상상력을 기른다.’를 성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 특히 고전 시가를 어렵게 느끼는 학습자들에게 정철의 이러한 시조들은 ‘시조’도 현대의 학생들이 즐겨있는 시와 소설과 같은 표현 문학의 한 장르임을 자연스럽게 학습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

1)

재너머 成成勸 권農룡의 집의 술 닉단 말 어제 듣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트고
아히야 네勸 권農룡 계시냐 鄭正座 좌首슈 왔다 ㅎ여라

위의 시조는 기주취락을 노래한 것으로 정철의 시조 중에 가장 호기롭게 읊고 있는 작품이다. 우계(牛溪) 성훈(成渾)의 집에 술로써 초대되어 가며 그 흥취를 그린 시조이다. 우계와는 정철이 일년 연하인 평생의 지기였다. 그러나 그는 근엄한 도학자요 정철에게는 항상 학문과 계주(戒酒)로써 권면하던 이였다. 즉 지기이면서도 그 성격은 아주 대조적이였다. 그러한 우계에게서 초대를 받았으니 술도 반갑지만 자신의 호방한 풍류를 우계의 근엄한 법도를 한번 뜻대로 휘감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여 더욱 흥을 내는 정철의 마음이 느껴진다. 성권농에게는 항상 한 수 아래였던 정좌수가 술자리에서는 마음껏 호기를 떨쳐 볼 것을 생각하며 소를 박차고 가는 정철의 흥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 작품은 술과 벗을 좋아하는 작가의 성품이 소박, 담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초장에서는 재 너머 성권농 집의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당연히 마시러 가야 한다는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 또한 표현 기교의 묘와 멋은 중장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에 있다. ‘언치’는 안장 밑에 가는 담요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거적이나 가마니 같은 것이 격에 맞을 것이다. 중종장은 성권농에 대한 해학과 술의 흥이 이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중장에는 직접 술을 마시기 위하여 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술이 익었다는 말은 어제 들었는데 오늘 마시러 가는 모습은 상당한 긴박감을 보여준다. ‘지즐타고’는 눌러 탄다는 뜻인데, 이 전체의 시행에서 작자의 불현 듯 생각나는 벗과 술,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성급함이 그대로 토로되었으나 조금도 초조하지는 않다. 그런데 발로 박차 지즐 탄 것이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소이다. 더구나 출발 이후 중장에서는 성권농 집 앞에서 종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신의 집을 출발하여 성권농의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성권농의 집 앞에 이르러 “정좌수 왔다 일러라”하고 호기롭게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철의 역동적인 표현력과 성권농에게 느끼는 친근감, 그리고 정철의 진솔한 흥과 야취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의 작품은 묘한 불일치와 과감한 생략이 흥취를 돋우고 있다. 흙 내음 풍기는 전원의 향취가 시 전체에 무르익어 있는 그런 느낌의 시조이다.

이 시조는 시조를 읽은 후 느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감상하는 측면에서의 교육이 적합할 것이라고 본다. 시조 문학이 여느 문학 작품처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문학이라는 것을 학습시키기에 좋은 시조이다. 또한 이 시조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여유로운 인생관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등 작품의 수용 학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2)

흔 蠶잔 먹새근여 또 흔 蠶잔 먹새근여 곳 것거 算산 노코 無무盡진無
무盡진 먹새근여

이 몸 죽은 後후면 지게 우히 거적 덩허 주리혀 락여가나 流뉴蘇소寶보
帳당의 萬만人인이 우러 네나 어욱새 속새 덩가나모 白백楊양 속애 가

기 곳 가면 누른 히 흰들 ㄹ는 비 굴근 소 쇼소리 브람 불 제 누 흐 齷
잔 먹자홀고

흐물며 무덤 우히 진남이 프람 불 제야 누우춘들 엇디리

「장진주사」는 송강 정철의 『송강가사』 및 『문청공유사』에 가사로 수록된 권주가이다. 하지만 『청구영언』 및 『근화악부』 등 각종 가집에 널리 실려 전한다는 점과 이 작품이 비록 평시조의 정형성에서는 많이 이탈하였으나 3장 구성체라는 사설시조의 틀을 유지하고 음보수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어 사설시조로 보는 것이 옳다.³²⁾

초장은 반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중장은 대조법과 병치법의 교묘한 조화에 의하여 표현의 묘를 살렸으며,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에 걸맞는 소재를 선택해 삶의 허무함이란 무거운 주제를 어두운 어조로 잘 묘사해 냈다. 특히 고사성어나 한자 조어를 피하고, 일상적 생활어를 시어로 선택하여 대중과의 공감대를 폭넓게 확보하고 있다.

이 작품을 의미에 따라 분단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1) 흐 齷잔 먹새근여 ~ 無무盡진無무盡진 먹새근여
- 2) 이 몸 죽은 後후면 ~ 누 흐 齷잔 먹자홀고
- 3) 흐물며 무덤 우히 진남이 프람 불 제야 누우춘들 엇디리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새그려’라는 어미가 반복되면서 체념을 자아낸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허무를 생각하니 잔을 들어 술을 마시는 것이 제일이다. 그래서 무진무진 마시고 잠시라도 잊자고 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 ‘이 몸 주근 후면~’에서는 죽은 뒤의 모습과 무덤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노래하였다. 거적에 말려 지게 위에 줄로 묶여 가든지 화려한

32) 김갑기, 『송강가사』, 지만지고전출, 2008.

휘장에 싸여 만인의 추도 속에 가든지 죽은 뒤의 느낌은 모두 음산할 수 밖에 없다. ‘누른 희’, ‘흰 들’, ‘ㄱ눈비’, ‘굴근 눈’, ‘쇼쇼리브람’ 등 다양한 시각적·청각적 심상을 환기하지만 이들의 결합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역시 ‘스산함’과 ‘쓸쓸함’이다.

이러한 상실감은 마지막 단락에서 절정에 달한다. 찾아오는 이 없는 황량한 무덤 위에 잔나비만 뛰어다니는 쓸쓸한 광경은 살아 있는 이 순간을 즐겨야만 하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죽은 뒤에 생전에 못다 한 일들을 안타까워해도 소용없기에 지금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는 것이다.³³⁾

「장진주사」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쓸쓸한 분위기와 정서를 문학 감상적인 측면에서 감상해 보는 학습으로 지도하거나 또는 ‘죽음의 허무함’이라는 소재를 통해 ‘현실에 충실하자’는 결론으로 이끌어 내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시에서 느껴지는 쓸쓸한 분위기와 작가의 태도를 감상하고 이 시조를 외재적 접근으로 감상한다면 당시 작가가 처해 있던 상황과 연관 지어 이해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시조에 드러나는 느낌을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시조라는 문학이 어떠한 의미로 창작이 되었나 하는 넓은 의미의 시조 문학의 성격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南山岬 어드메만 高學士 草堂 지어
곳 두고 들 두고 바회 두고 물 둔논이
술조차 둔논 양 햏야야 날을 오라 햏거니

작자가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의 초대를 받은 장면을 노래하였다. 제봉은 정철보다 3년 연상으로, 정철과는 시주풍류로써 교유가 깊은 사이였다. 이 제봉이 산속에 초당을 짓고는 정철을 초대하였다. 꽃, 달, 바위, 물이 어울린

33) 류연석, 「시조와 가사의 해석」, 역락, 2008.

멋진 초당에서 술까지 담가 두고서 정철을 부른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초당도 매력적인데 술까지 있으니 반갑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 시조에서 정철의 태도는 느긋하다. “재 너머 성권룡 집의~”라는 위의 시조에서 누운 소를 발로 차 일으켜 한 걸음에 달려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연히 갈 터이지만 짐짓 사양하는 척한다. ‘-두고, -두고’, ‘오라 흐거니’라는 표현에서 ‘무엇 무엇을 두고서 날 오라고 하는데 가 줄까’하는 장난스러움이 느껴진다. 이 시조는 평생의 지기로 지내온 제봉과 정철의 정신적 교감과 풍류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유연한 풍도(風度)와 아취(雅趣)가 있는 가운데 해학이 깃들여 있다.

4)

쥘 술 걸러 내여 밋도록 먹어보새

쓴 누물 데워 내여 드도록 십어보새

굽격지 보요 박은 잣당이 무되드록 돈너보새

비록 쥘 술과 쓴 나물과 같이 변변치 못한 주효(酒肴)일망정 그것이 독하고 달게 느껴질 때까지 취토록 마시고, 나막신에 박은 잔 징이 무디어 지도록 다니며 놀아 보자고 한 것이다. 이러한 탐닉은 쥘 술과 같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학의 여운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고유어 사용을 통한 표현 미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철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상징이나 함축 등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읽는 재미가 있으며 또 흥이 넘친다. 이러한 흥은 어휘적 측면에서 기여가 크다. 먼저 ‘십어보새’라는 어휘는 시어로서는 부적절한 언어 일 수도 있음에도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작품의 토속성과 사실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종장에 쓰인 ‘굽격지’와 ‘보요’의 단어들은 이 작품에서 용례를 찾고 있으니 그의 어휘 사용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정철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작품 속에서 사용된 어휘들이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함으로써 작품의 회화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회화성은 바로 위와 같은 ‘고유어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³⁴⁾

5)

꺾 권이 저물가마는 간 데마다 술을 보고
넋집 드러내여 웃는 줄 므스 일고
전전의 아던 거시라 몬내 니저 흐노라

술을 즐겨함을 읊은 것으로 술을 좋아했던 정철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인생 50이던 젊은 나이가 아닌데도 가는 데마다 술을 보고 좋아서 잇몸을 드러내어 웃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체통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래 전부터 즐기던 술을 지금 와서 끊을 수는 없다고 하여 술을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었다. 괴로움이 있을 때는 술이 항상 나를 위로해 주는 유일한 낙이 되었으니 술이 아니면 어이하겠느냐는 것이다. ‘넋집 드러내여’는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술을 보자 반가워하며 웃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 생생한 표현력이 인상적이다.

이 작품을 감상하면 술을 보고 좋아서 입을 헤벌리고 있는 정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시조에서 미학적 도구로 흔히 사용하는 상징이나 함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감상이 자연스러운 것은 사용되어진 어휘들이 친숙하고 표현이 진솔하기 때문이다. ‘넋집’이라는 어휘는 ‘이’의 대응으로 쓰인 말이다.

또한 종장의 ‘전전의’라는 표현은 ‘예전에’라는 표현이 훨씬 일반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전전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친숙미를 드러내고 나아가 의미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을 획득하게 된다. 즉 ‘예전의’라는

34) 김진욱, 「정철 시조의 문학적 특성 연구」, 『고시가 연구』, 한국 고시가 문학회, 2003.

표현은 옛날의 일로 치부되어버림에 반하여 ‘전전의’라는 표현은 예부터 지금까지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철의 시조들은 이와 같이 같고 다듬어지기보다는 기발한 어휘를 유의적절하게 사용하여 신선한 표현으로 독자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6)

명명珠주 四스萬만斛곡을 년넙피다 바다서

담는 듯 되는 듯 어드러 보내는다

험스흔 물방울은 어위계워 하는다

지당에 내리는 소나기가 맑고 깨끗한 물방울이 되어 쏟아지는 흥겨운 광경과 연의 청정불염(淸淨不染)하는 모습을 자신의 심성에 비유하여 노래한 시조이다.

지당의 연잎에 비가 내리는 광경이다. 연잎에 쏟아지는 무수한 빗방울을 ‘명주 사만곡’이라 하고, 연잎에 담겼던 물이 다시 아래로 쏟아지는 모습을 ‘담는듯 되는듯’하다 표현하였다. 또한 이리저리 물방울이 듣는 모양을 ‘어위계워’라고 한 데서 작자의 예민하고 섬세한 관찰력과 뛰어난 묘사와 기교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청흥을 느끼게 한다. 감각의 날카로움과 묘사력이 탁월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사물의 감각적 실체에 대한 정철의 예민한 관찰력과 감수성을 보여준다. 연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사만(四萬) 곡(斛)의 구슬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포착하며 감탄을 자아낸다. 아무런 소리도 직접 묘사하지 않았지만 독자는 마치 한 음 한 음이 툭툭 튀어 오르는 빗방울 행진곡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연잎에 툭 떨어져서 또르르 굴러가는 빗방울은 생명의 느낌을 전해 준다. 이 작품에서 “명주”나 “연잎”과 같은 명사는 그 자체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무기력한 시어들이다. 구슬을 연잎에 “받아서”,

“답는 듯”, “되는 듯”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움직임과, 그 물방울을 어디론가 흘러 보내는 연속적 움직임과, “어위 계워”하는 즐거운 움직임 등이 명사 시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헨스훈”이라는 형용사는 또 어떠한가. 한 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장난스럽게 굴러가는 물방울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³⁵⁾

위의 작품들은 마지막 시조를 제외하고 모두 술을 좋아했던 정철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풍류’와 ‘흥취’가 느껴지는 시조들이다. 이러한 시조들은 먼저 문학 감상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텍스트가 될 것이다. 시를 읽고 느껴지는 분위기를 학습해 보고 작가의 인생관을 알아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작품 자체를 감상하고 학습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더 나아가 문학이 갖는 풍류와 흥취 그리고 자기표현을 이해시킨다는 넓은 의미에서 접근하는 학습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마지막 시조 역시 ‘술’이라는 소재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자연에서의 흥취를 엿볼 수 있는 시조 중 하나이다. 시조 문학과 문학의 한 범주에 속하는 장르로써 소설이나 시 또는 노래 가사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문학의 한 종류라는 것을 학습시킨다면 문학이 가치의 산물임을 이해하는 7차 교육과정 문학 교육의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시조의 감상 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시조 감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시조 작품을 읽고 정리한 후에도 유물처럼 저만치 있는 대상물이 되면 곤란하다. 작품은 자기화하는 일련의 감상활동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빠져드는 읽기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시조 교육은 문학교육이라고 할 수 없고 맹목적인 지식 전수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시조 작품을 통한 정서적 체험은 당대의 삶을 제대로 읽는다는 뜻도 포함되고 스스로 과거와 대

35)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윤선도와 정철의 경우』, 월인, 2004, P53.

화하는 길을 모색한다는 말도 된다.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살아있는 시조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와 같이 풍류와 흥취가 깃든 작품을 시조를 감상하고 즐긴다는 측면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당시대를 살던 정철의 삶과 그의 인생을 보충 학습으로 학습하여 그가 이런 시조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삶의 태도 등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좀 더 풍부하게 시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시조 감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시조를 통해 흥취를 노래하던 작가의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화자의 내면을 알아보는 활동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고 시조를 감상 한다면 시조 문학이 단순히 지식 전수로 그쳐지고 마는 시조 교육에서 탈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조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면 시조 문학을 어려운 고전 문학이라고 기피하는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시조 문학의 선입견을 깨버릴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애정·연군의 시조 - 이별의 정한

애정과 연군의 마음을 나타내는 시조는 전체의 시조 문학에서도 대표되는 시조의 주제 중 하나이다. 정철의 경우에도 애정·연군의 시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사 문학의 대표로 꼽히는 정철의 「속미인곡」과 「사미인곡」의 경우도 화자를 여성화하여 임금에 대한 연군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는 가사 뿐 아니라 시조에 있어서도 이러한 화자를 여성화 한 애정·연군의 시조를 지었다. 이런 시조들은 앞서 말한 정철의 정치적 일대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정철 시조 특유의 ‘고유어’의 쓰임으로 그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1)

내 마음 버혀 내어 별들을 링글고져
구만리 당턴의 번드시 걸려이셔
고은 님 계신 고딧 가 비최여나 보리라

임과 함께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 한 것이다. 임을 그리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임이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베어 내어 달을 만들어 임을 비추어서라도 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충정이 표출되어 있다.

2)

머귀넙 디거야 알외다 ㄹ을힌줄을
細雨 淸江이 서느럽다 밤기운이야
千里의 님니별호고 줌못드러 호노라

가을이 되니 임 생각이 새롭다는 내용이다. 계절의 변화도 모르고 지내던 화자는 오동잎이 지는 걸 보고 비로소 가을임을 깨닫는다. 맑은 강에 가을비가 내리고 나니 밤기운도 서늘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쓸쓸한 가을이 되니 천리 밖에 떨어져 있는 임을 그리워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였다.

3)

석양 빗긴날에 강천이 흐릿친제
풍엽노화에 우러네는 더기력아
ㄹ을히 다디나가되 쇼식몰라 호노라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기다리다 울며 가는 기러기에게 소식이나 전해 주

길 바라며 하소연하는 시조이다. 석양이 비껴 하늘과 강이 모두 붉게 물들었는데, 단풍나무 갈대숲 사이로 기러기가 날아간다. 기러기는 임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으려니 생각하며 기러기를 통해서나마 임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노래하였다.

4)

나올적 언제러니 추풍의 낙엽는데
어름눈 다녹고 봄꽃치 피도록애
님다히 기별을 모르니 그를설워 하노라

임의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여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였다. 임과 헤어질 때는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는 때였는데, 어느덧 겨울이 지나 얼음과 눈이 다 녹아 봄꽃이 피었다. 그런데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5)

길우히 두돌부터 벗고굽고 마조셔셔
बर람비 눈서리를 맞도록 마즐만경
人間에 離別을모르니 그를불워 호노라

위의 시조는 님을 여인 고독과 별리(別離)의 정한을 노래한 것이다. 의외의 대상에 인간의 이별사를 결부시킨 점이 참신하다고 할 수 있는 시조이다. 두 돌부처는 먹지도 못하고 옷 한 벌 없이 바람 비 눈서리를 수도 없이 맞고 있다. 밤낮 없이 서 있으니 앉거나 누워서 쉬는 것도 불가능하다. 의식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 그 같은 삶의 악조건도 없다. 게다가 바람 비 눈서리에 날마다 제 살이 깎여야 한다. 이별의 고통이 이보다 더하다니 어느

만큼 고통스러운지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별은 먹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먹지 못하며 입을 것이 없으나 입지 못하는 고통을 동반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토속적인 제재(題材)에 해학미가 곁들여 있으며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동시에 드러내는 기교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벗고굽고 마조셔셔’는 운율적이고 해학적이다. 길위에 서서 바라본 들부처의 모습이 눈에 선할 뿐 아니라 ‘두’ 들부처가 ‘쌍쌍(雙雙)’이 마주 서서 바람비 눈서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답게 서있는데, 자기는 ‘혼자’서 ‘쌍(雙)’이 없는 처지이니 비록 입고 먹고 하지만 바람비 눈서리를 맞는 것보다 더 처절한 별리한 고독감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바깥의 비바람이나 눈서리에 무감할 정도로 마음속에는 찬바람이 불고, 심장은 얼어붙어 있다. 이 같은 이별의 고통은 들부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였다.³⁶⁾

정철의 애정·연군의 시조들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이별의 아픔과 입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정철의 시조 뿐 아니라 사대부 시조에서 나타나는 애정 시조는 임금을 향한 연군의 마음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가 품고 있던 문화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대부들에게 시조 문학은 풍류를 즐기며 감흥을 나타내거나 마음의 바른 도리를 찾는 도구로 주로 향유되었지만 애뜻한 사랑과 슬픈 이별을 노래하는 시조들도 창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조들은 대부분 임금을 향한 지조와 충절을 여성화자의 입장에서 입을 향한 사랑의 노래로 돌려 표현하였고 이별의 시조들 역시 정권 싸움에서 패한 후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이별 한 여인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빗대어 표현되었다.

이러한 사대부들의 이별 시조를 통해 당시 사대부들의 문학 문화를 학습해 볼 수 있다. 그들이 노래한 사랑과 이별의 시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교적인 이념과 문화에 대해 학습할

36)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윤선도와 정철의 경우』, 월인, 2004, 82쪽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시 사대부들의 시조 문학이 그들이 향유하던 문화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시조 문학의 고유성을 찾아낼 수 있다. 사랑과 이별의 시조들은 기녀 계층 또한 많이 창작하였는데 그러한 시조들과의 차이를 통해 기녀들의 생활 문화와 사대부들의 문화의 차이에 따라 같은 이별시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문화와 비교하여 그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문학과 문화의 교육으로도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IV. 정철 시조의 교수 학습 방안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 목표는 전문(前文)과 영역별 목표로 구성되었다. 전문에서는 문학 과목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영역별 목표에서는 학교 학습의 주요 구성 요소인 지식, 활동, 태도의 관점에서 필요한 목표를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2007년 개정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목표³⁷⁾는 다음과 같다.

문학을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

나.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문에 제시된 ‘문학’과목의 목표는 문학 이해와 경험, 문학 활동 능력, 자아, 공동체의 네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들이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음을 보인다. 문학 학습의 주요 목표로는 문학 이해, 문학 경험, 문학 활동 능력 및 문학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였고, 문학 활동 능력이 언어에 대한 통찰력,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소통 능력을 기르며, 문학 활동이 궁극적으로 자아의 실현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밝혀 문학 학습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 체계는 문학의 성격과 ‘문학’ 과목의 목표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문학의 본질에 대한 지식 목표를 추구하는 ‘문학의 성격’, 문학 활동 능력 목표를 추구하는 ‘문학 활동’, 문학의 실체적 양상에

37) 교육부, 교육과정 해설서, 303쪽

대한 이해를 지향하는 ‘문학의 위상’, 그리고 인간의 실천적 삶과 문학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향하는 ‘문학과 삶’의 네 영역을 설정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학’과목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체계>

문학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개념 ◦ 문학의 역할 ◦ 문학의 갈래
문학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수용 ◦ 문학의 생산 ◦ 문학의 소통
문학의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과 문화 ◦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문학과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과 자아 ◦ 문학과 공동체 ◦ 문학의 생활화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목의 ‘문학’영역의 내용 체계를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문학’영역의 내용 체계는 작품을 중심으로 ‘지식’, ‘수용과 생산’, ‘맥락’을 내용 영역으로 설정했는데, 본 ‘문학’ 과목은 작품의 중심으로 하되 ‘지식’영역은 ‘문학의 성격’과 ‘문학의 위상’ 두 영역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수용과 생산’ 영역은 ‘문학 활동’ 영역으로 발전시켜 학습자의 실천적인 문학 활동을 강조하였으며, ‘맥락’영역은 개별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귀속시킨 대신 ‘문학과 삶’의 영역을 새로이 설정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다층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학습자의 실천적인 삶과 문학의 밀접한 관련을 강조했다.

이 장에서는 문학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체계를 고려해 위에서 나눈 3군

의 정철 시조의 학습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훈민가」의 경우 교훈적 가치를 생활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학과 삶’의 ‘문학과 공동체’라는 세부 영역과 관련지어 학습방안을 구상하였다. ‘문학을 통하여 사회, 민족, 역사, 자연 등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갖는다.’라는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훈민가」를 통한 윤리교육을 구상해 보았다.

두 번째로 풍류·흥취의 시조군을 통해서도 생활의 소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상 교육을 초점으로 학습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것은 ‘문학의 성격’영역의 ‘문학의 역할’이나 ‘문학 활동’영역의 ‘문학의 소통’측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감상 교육인 만큼 ‘문학이 상상력과 감수성을 길러 수준 높은 소통 능력을 함양함을 이해한다.’는 세부 내용 요소와 연관지어 풍류·흥취의 시조의 학습방안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애정·연군의 시조군은 이별의 정한을 감상하며 시조의 표현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학습방안을 구상하였다. 이 학습방안은 ‘문학 활동’영역의 ‘문학의 수용’과 관련시킬 수 있다. 특히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는 세부 내용 요소와 연관시켜 학습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1. 「훈민가」를 통한 윤리교육

「훈민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창작된 시조이며 유교 윤리를 주제로 하여 세련된 기교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주세붕의 「오륜가」와 같은 조선시대 훈민 시조들이 표방하던 유교적 윤리 이념에서 나아가 화합과 협동의 측면을 강조하며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켜야 할 덕목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 「훈민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가」가 단순히 유교적인 윤리 덕목만을 늘어놓은 교훈 시조라면 사실상 21세기를 사는 현대의 아이들에게 단순한 구시대의 유

물로만 학습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훈민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동체 의식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훈민가」의 유교 윤리 덕목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도덕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새로운 「훈민가」로서의 학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은 ‘문학’과목의 내용체계인 ‘문학과 삶’의 ‘문학과 공동체’라는 세부 영역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문학을 통하여 사회, 민족, 역사, 자연 등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갖는다.’라는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훈민가」를 통한 윤리교육을 구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철의 「훈민가」의 주제 의식 밑에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주제적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위와 같은 ‘문학’과목의 내용 요소와 연관시켜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예비학습】

☞ 괄호안의 단어를 함께 채워 봅시다.

1. 시조의 개념

고려 후기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한 신흥 사대부들이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기존의 문학 양상인 경기체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교적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 새로운 표현 양식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창안된 국문학 양식이다. 시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왕조 오백년 동안 (양반)은 물론, (평민) 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창작되고 향유되는 문화 양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2. 시조의 형식

- ① 일반적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를 기본형으로 한다.
- ② 기본 음수율은 3·4조 또는 4·4조를 기조로 하며 한두 음정의 가감은 허용된다
- ③ 율격은 4음보로 하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고, 둘째 음보

는 5음절 이상으로 한다. 이는 시조 형식상 가장 엄격한 제약이다.

3. 시조의 종류

- ① (평시조): 시조의 기본형으로 단형 시조를 말한다. 평시조를 2수 이상으로 한 작품을 구성한 경우 연시조라고 한다.
- ② (사설시조): 평시조보다 초·중장이 무제한으로 길어지고 종장도 어느 정도 길어진 장형시조를 말한다.

4.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시조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강호 시조)와 유교적 덕목과 이념을 강조하는 내용의 (훈민 시조)가 주를 이루었다.

【내용학습】

☞ 다음은 정철의 시조 「훈민가」 16수 중 2수이다. 화자가 시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훈민가>

정철

(가) 밋을 사름들아 올흔일 흐자스라
사름이 되어나셔 올치웃 못흐면
밋쇼를 갓곳갈 삿위 밥 먹이나 다르라

(나)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오 가자스라
내 눈 다 띠여든 네 눈 점 띠여 주마
올 길히 썩 빠다가 누에 먹켜 보자스라

『송강가사』 (성주본)

<어구 풀이>

밋을: 마을

올흔일: 옳은 일. '올흐다'는 '옳다'의 옛말

흐자스라:하자구나.

올치웃: 옳지곧

밋쇼: 말과 소

갓 곳갈: 갓과 고깔

새거다: 새었다. '-거다'는 '-었다'의 옛말

메오: 메고

띠여든: 매거든. '띠다'는 '매다, 뽀다'의 옛말.

'-여든'은 '-거든'의 옛말

점: '좁'의 옛말
올 길히: 돌아오는 길에

떡켜: 먹여.

(1) 위의 시조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보자.

작품	주제
가	
나	

(2) 다음은 「훈민가」에 대한 설명이다. 관찰사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지만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훈민가」는 작가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지은 연시조로, 총 16수로 이루어져 있다. 창작 동기와 목적은 유교를 보편화하고 윤리 도덕의 실천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목민가로서 목적 문학에 속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부모에 대한 효성, 형제간의 우애, 이웃 간의 상부상조 등 유교적 윤리·도덕의 실천을 주제로 하고 있다.

(3) 다음은 「훈민가」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글에서 표현된 '정감어린 어휘'를 찾아보고 명령하는 어법 대신 어떠한 어법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정철은 사대부 계층의 선형적인 가치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명령하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정감어린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강렬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4) 다음은 「훈민가」 16수에 쓰인 정철이 강조한 윤리 덕목 16가지이다. 조선 시대의 중시되는 윤리 도덕적 덕목들과 현대 사회에서 중시되는 윤리 덕목은 무엇이 있을지 각각 생각해보자. 또한 현대 사회와 조선 시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덕목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 ①부의모자(父義母慈) ② 형우제공(兄友弟恭) ③군신유의 (君臣有義)
 ④자효(子孝) ⑤ 부부유은(夫婦有恩) ⑥ 남녀유별(男女有別) ⑦자제유학(子弟有學)
 ⑧향여유예(鄉閭有禮) ⑨장유유서(長幼有序) ⑩붕우유신(朋友有信)
 ⑪빈궁우환친척상구(貧窮憂患 親戚相救) ⑫ 혼인사상인리상조(婚姻死喪 隣里相助)
 ⑬무타농상(無惰農桑) ⑭무작도적(無作盜賊) ⑮무학도박, 무호쟁소(無學賭博, 無好爭訟)
 ⑯반백자불부재(斑白者不負戴)

자제유학: 자식을 가르치는 것

혼인사상인리상조: 이웃간에 장사나 혼인을 도울 것

향여유예: 마을사람에게 예가 있는 것

무타농사: 생업에 힘쓰길 권장

빈궁우환친척상구: 친척 간에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반백자불부재: 어른공경

	조선시대	현대사회
공통된 윤리 덕목		
다른 윤리 덕목		

【모둠 학습】

☞ 다음 기사를 읽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해 보자.

3일 유튜브 등 인터넷 UCC(사용자 제작물) 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하철 패륜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에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0대 소녀와 60대 할머니가 말다툼 끝에 머리채를 잡고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동영상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다.

두 사람의 말싸움 중반부터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할머니가 10대 소녀에게 "나 이먹은 사람이 뭐? 이것들이? 이것들이?"라고 말하자 10대 소녀가 "싸가지가... 저 욕 좀 봐"라고 말한다. 다시 할머니가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이? 다리 꼬을때 부터..."라고 말하자 소녀는 다시 "뭐! 나한테 뭘 원하는데 니가!"라고 계속 반말을 하자, 할머니는 "니가? 그래! 34년생이다! 왜? 왜?!"라며 소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만해라'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며 말렸지만 몸싸움은 더 격렬해졌다. 하지만 직접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싸움을 보다 못한 한 승객이 둘다 똑같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할머니는 이 승객과 잠시 언쟁이 붙었다.

소리를 지르며 자리로 돌아간 소녀는 울먹이며 "나 한국이 너무 싫어!"를 연발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는 다시 돌아와 소녀 옆자리에 앉으며 소녀를 손으로 밀쳐 앉았다. 동영상을 촬영한 이를 발견한 소녀는 "유튜브에 올려! 유튜브에 올려!"라며 소리를 지른다.

1분 40여 초 분량의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선뜻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동영상의 맥락이 중간부터 촬영된데다, 어른에게 막말하는 10대 소녀, 소녀를 훈계하다 폭력을 행사하는 할머니, 싸움을 직접 말리지 않는 승객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어 쉽게 누구를 두둔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동영상을 올린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 지적도 나오고 있어 과거 '패륜녀 신드롬'과는 다른 양상이다.

일부 10대 소녀와 60대 할머니의 편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도 있지만, 판단을 유보하거나 최근 각박한 세태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트위터의 한 사용자는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과 어린애를 감정적으로 다루는 할머니의 모습"이라며 "우리 세태가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지하철 패륜녀라는 제목이 정말 어이 없다. 원래 4분 남짓한 동영상이라는데 앞부분 자르고 올린 이는 더 나쁘다"며 동영상을 올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세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에 위기를 느낀 기성세대의 반발이 만들어낸 촌극이라는 것. 이를 바라보는 '관객'들은 '사건'에 직접 참여해 개입하기보다 관찰자 시점에서 평가하고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지적이다.

노컷뉴스 2010년 10월 4일자

(1) 위의 신문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을 모듈별로 토론해 보자.

(2) 누구의 잘못이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자.

(3) 위의 기사의 주인공들에게 충고 해 줄 수 있는 말을 시조 「훈민가」의 내용에서 찾아보자.

☞ 시조 「훈민가」는 생활에 쓰이는 일상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강한 명령이 아닌 완곡한 명령과 청유의 형태를 통해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 등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창작되었다. 이러한 「훈민가」를 모방하여 우리 시대의 새로운 「훈민가」를 창작하여 보자.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현대의 윤리 의식에 맞추어 도덕적, 윤리적인 실천 사항들을 시조로 창작해 본다.

- ☞ 우리말과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창작할 것
- ☞ 화법은 수평적인 것으로 할 것
- ☞ 「훈민가」라는 기존 시조의 제목을 바꾸어 볼 것.
- ☞ 주제를 3~4개로 정해 각 주제에 맞는 시조를 3~4수 창작해 볼 것.
- ☞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과 도덕을 주제로 할 것.

(예시답안)

신 도덕가(新 道德歌)

학급 친구들아 노인공경 하자스라
지하철 자리양보 무거운 짐 대신 들기
무너진 도덕심에 나 늙으면 후회한다.

1) 예비학습

「훈민가」를 가르치기에 앞서 시조 문학의 특징에 대해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시조가 향가, 고려가요, 가사와 함께 국문 시가의 한 장르임을 알고 형식과 종류 등 이론적인 내용을 PPT 자료를 통해 수업에 앞서 설명한다. 이 같은 학습은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배울 때 그 작품의 내용을 학습하고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국문학의 갈래에 대해 학습할

수 있어 더욱 심도 있는 문학 수업으로 발전 할 수 있다. 또한 「훈민가」의 경우는 시조 중 교훈 시조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훈시조는 사대부들의 경세의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투영된 유형으로서 16세기 중반에 양식적 확립을 이루었다. 「훈민가」는 인간관계의 기본 윤리로서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존중되어 온 오륜의 일상화를 도모함으로써 향촌사회의 풍속을 순화하려는 목민관으로서의 치민의식(治民意識)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훈민가」는 교훈시조 가운데서도 작품 수준이 빼어나 17세기 후반 『경민편』에 수록되는 등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는 보충적인 설명도 좀 더 효과적으로 「훈민가」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비학습은 PPT자료를 통한 시조 문학의 개념과 형식, 종류 등 문학의 이론 학습을 한다. 이때에 학습자들에게 괄호의 빈칸을 채워 넣어보게 하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한다. 또한 PPT자료에 쓰인 내용을 보충 자료로 정리된 프린트 물을 제공하여 시조 문학 장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내용학습

내용 학습에 있어서는 해당 시조를 함께 읽으며 어휘를 풀이하고 시조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현대어로 해석된 시조를 제시해 준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 고어의 쓰임이 많은 고전시가는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훈민가」의 경우 일상어의 사용 등으로 학습자들이 시조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훈민가」에서 쓰인 이러한 일상어들이 주는 효과와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훈민가」를 통한 윤리교육과 인성 교육으로 확장을 위한 학습을 구상하였다. 정철의 「훈민가」에서 강조하는 윤리 덕목 중 현대 사회에서도 요구되는 덕목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한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윤리·도덕적 내용을 생각해보게 하여 창작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모둠학습

「훈민가」는 정철이 강원도 도민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16수의 연시조이다. 당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지켜야 하는 윤리 의식과 도덕의식의 소재를 총 16가지로 정해 각 소재에 해당하는 시조를 한 수 씩 지어 16수의 연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16수의 연시조를 한수 한수 학습하기란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적어도 「훈민가」가 16수로 되어 있고 각 수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조라는 것은 학습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훈민가」는 앞서 이야기 하였듯 문학적인 가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윤리적인 학습의 도구로써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특히 현대에 무너져가는 윤리 의식이나 개인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의 팽배로 현대의 아이들이 ‘협동과 협력’의식이 약하다는 문제점 등을 생각해 볼 때 「훈민가」는 윤리 교육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따라서 모둠학습에서는 최근의 도덕과 윤리의식의 결여로 발생한 사건의 신문기사를 주고 학습자들에게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현대사회에 「훈민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학습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훈민가」가 단순히 조선시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기 위한 교훈 시조가 아닌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던 시조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또한 조선 시대의 윤리의식 중에 현대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윤리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훈민가」를 통해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또한 「훈민가」 학습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현대 시대에 맞는 「훈민가」를 각각 지어보게 하는 창작 활동을 제시하도록 한다. 「훈민가」에 나타난 부의모자나 봉우유신의 사상은 현대의 아이들에게도 강조되어야 할 윤리적 덕목이

라는 점에서 이러한 학습은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모듈별로 정철이 「훈민가」에서 제시한 16가지 항목처럼 학급 친구들에게 함께 지키자고 말하고 싶은 윤리 의식이나 도덕적 규칙에 대해 5~6가지 항목을 정해 그에 맞는 내용의 시조를 다 같이 창작해 보게 하는 활동을 제시해 본다. 더불어 정철이 사용한 「훈민가」라는 제목 대신 어울리는 제목도 생각해보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창작 학습이 될 것이다. 이때는 교수자는 프린트물이나 PPT 화면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2수의 시조 외에 「훈민가」 16수 전체를 제공해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조를 읽고 그 안에서 모방하여 창작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창작학습은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더불어 시조라는 문학 장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잘 부합되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듈 활동은 「훈민가」를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결부시켜 확장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문학을 통해 우리 생활을 각성해 보게 하며 또 조선시대의 윤리 의식과 현대의 윤리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풍류·흥취의 시조를 통한 정서 함양 교육

김덕현은 현대적 입장에서 시조 문학의 교육성에 대해 ‘시조 학습의 역동적인 활동 속에서 언어와 문학에 대한 미적 감각의 세련과, 삶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교육적 작용성에서 찾을 수 있다.³⁸⁾’고 했다. 이처럼 시조 문학 교육은 단순히 선인들의 도덕 교육에 가까운 유교적 이념을 답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수용과 내면화를 할 수 있는 문학의 한 장르로서 교육되어야 한다. 현대의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시 한편을 일기장에 써 두고

38) 김덕현, 시조 문학 교육론, 박이정, 2004, P30

암송 하는 것처럼 시조 문학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학의 한 장르라는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문학의 역할 중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함양시키고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문학의 한 장르인 시조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문학적 정서 등은 중요한 문학 교육의 요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철의 시조 중 ‘풍류와 흥취’가 잘 나타난 일군의 시조들은 이러한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과 내면화를 위해서는 시조에서 나타난 언어적 특징이 시조 감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정철의 시조 중 ‘풍류와 흥취’가 느껴지는 시조 3편을 선별하여 정철 시조의 감상을 통해 느껴지는 문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특히 시조의 감상적 차원에서 시조 감상 후 느껴지는 감정과 분위기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 방안을 구성해 보았다. 또한 시의 언어를 통해 작가의 문학적 세계관을 알아보고 문학이 어떠한 기능을 하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본질의 차원에서 학습을 한다. 이 활동에서 선별된 시조는 ‘원 술 걸러내어~’ 와 ‘남산 뵈 어드메만~’ 그리고 ‘재 너머 성권릉~’ 세 편으로 정하였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풍류·흥취의 시조 학습을 하며 시조 문학이 우리 고유의 전통 문학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시조 감상에서 느껴지는 감수성과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내용학습】

☞ 다음은 정철의 시조 두 편이다. 이 시조를 읽고 정철 시조의 시어적 특징을 생각해 보자. 또한 시어들이 작품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며 시조를 감상해 보자.

_____ (가)

쥬 술 걸러 내어 톱도록 먹어보세
뽳 낱물 데워 내어 드도록 씹어보세
굽격지 보요 박은 잣당이 무되도록 든너보세

(현대어)

쥬 술 걸러 내어 맵도록 먹어 보세
썩 낱물 데워 내어 달도록 씹어 보세
나막신에 촘촘히 박은 징이 무디도록 다녀 보세

어구풀이

쥬 술: 맛이 시어진 술
톱도록: 맵도록, 매울 때까지
굽격지: 굽이 있는 나막신
보요: 뽁뽁하게

무되도록: 무디도록
잣당: 자디 잔 징. 징은 신이 닳지 않게
쇠로 만들어 신바닥에 박는 물건

(나)

재너머 成성勸 권농롱의 집의 술 닉단 말 어제 듣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트고
아히야 네 勸 권농 롱 계시냐 鄭 정좌좌首슈 왔다 히여라

(현대어)

재 너머 성권농 집에 술 익었던 말 어제 듣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를 놓아 놀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어구풀이

성권롱: 우계 성훈
언치: 말이나 소의 안장 밑에 까는 방식
이나 담요.

지즐: 지즐러, 놀러.
정좌슈: 송강 정철

『송강가사』 (성주본)

(1) 위 시조에 쓰인 시어들 중 일상적인 언어와 우리 고유어를 찾아보자.

(2) 위에서 찾은 시어들이 주는 느낌에 대해 생각해보자.

(3) (가) 시조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모습과 (나) 시조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모습을 각각 떠올려보자.

(가) 시조	
(나) 시조	

(4) (나) 시조에 나타난 화자의 상태를 초·중·종장 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장	술이 익었다는 소식을 들음
중장	흥에 겨워 누운 소를 발로 박차고 탐
종장	자신이 왔음을 알림

이렇듯 중요한 행위만 묘사하고 자세한 행위는 과감하게 생략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주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자.

(5) 다음은 송강 정철이 스스로에게 술을 경계하고자 쓴 「계주문」이다. 이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나의 취주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사의 불평 때문이며, 둘째는 흥이 나면 참을 수 없기 때문이며, 셋째는 손님 접대를 위함이며, 넷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주문(戒酒文)」

① 두 시조에는 모두 술이라는 소재가 쓰였다. 위의 글을 읽고 위 시조들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감상하여보자.

② 같은 소재가 쓰였지만 (가)시조와 (나)시조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6) 다음은 (나) 시조에 등장하는 ‘성권룡’ 성흔과 정철에 관한 글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며 (나) 시조에서 느껴지는 정철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위 시조의 ‘성권룡’은 우계(牛溪) 성흔(成渾)이다. 우계는 송강보다 1년 연상인 평생의 지기였다. 그러나 우계는 근엄한 도학자요 송강에게 항상 학문에 힘쓰고 술을 경계할 것을 권면(勸勉)해 주던 이였다. 즉 지기이면서도 그 성격이 아주 대조적이었다.

【심화학습】

☞ 다음 두 시조를 통해 같은 시어가 다른 시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생각해 보자.

(가)

南山되 어드메만 高學士 草堂 지어
곳 두고 들 두고 바회 두고 물 둔논이
술조차 둔논 양 흐야야 날을 오라 흐거니

(현대어)

남산 어디쯤에 고학사가 초당을 지어
꽃 두고 달 두고 바위 두고 물 뒀나니
술조차 둔 모양으로 나를 오라 하는구나

어구풀이

어드메: 어드메
고학사: 조선 중기 문인 고경명

『송강가사』 (성주본)

(나)

「오우가(五友歌)*」

윤선도*

내 버디 몇치나 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의 들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밧긔 쏘 더하야 머엇하리

구름 빗치 조타 하나 검기를 주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고즌 므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하야 푸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곳 뛰고 치우면 뉘 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서리를 모르느다.
구천에 불휘 고든 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뷘연느다
더러코 사시에 프르니 그들 도하하노라

차근 거시 노피 떠서 만물을 다 비취니
밤등의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잇느나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변인가 하노라

(현대어)

내 벗이 몇인고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구름 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맑다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른 듯 누르니
아마도 변치 않을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 지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뿌리 굳은 줄을 글로 하여 하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너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는다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 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고산유고』 (孤山遺稿)

* **오우가** 윤선도가 56세 때 해남 금쇄동(金鎖洞)에 은거할 무렵에 지은 《산중신곡(山中新曲)》 속에 들어 있는 6수의 시조로, 수(水)·석(石)·송(松)·죽(竹)·월(月)을 다섯 벗으로 삼아 서시(序詩) 다음에 각각 그 자연물들의 특질을 들어 자신의 자연애(自然愛)와 관조를 표백하였다. 이는 고산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것으로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어 시조를 절묘한 경지로 이끈 백미편(白眉篇)이다.

* **윤선도**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 작가. 호는 고산(孤山)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이 적과 화의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를 욕되게 생각하고 제주도로 가던 중 보길도의 수려한 경치에 이끌려 그 곳에 정착하여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 보길도의 자연을 배경으로 ‘어부사시사’ 등 많은 시조를 썼던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시조 작가이다.

어구풀이

버디: 벗이

하노매라: 많구나

그칠: 끊어질

늪: 때, 시간

고즌: 꽃은

변티아닐슨: 변하지 않는 것은

조타: 맑다. 깨끗하다

하노매라: 많도다

누르느니: 누렇게 되느냐

구천: 땅속

불휘 고든:뿌리 굳은

도하호노라: 좋아하노라

(1) 위의 작품은 윤선도의 시조 「오우가」이다. 정철의 시조 (1)에서 쓰인 시어와 공통된 시어들을 찾아보자.

(2) 공통으로 나타난 시어들이 각 시조에서는 어떠한 역할로 쓰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3) 다음은 사대부 시조에 관한 설명이다. 정철의 시조가 일반 사대부 시조와 차별되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사대부들은 주로 유교적이고 관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풍류와 감흥에 앞서 마음의 바른 도리를 찾는 시조들을 창작했다. 산수를 노래할 때에도 자연물에서 관념적인 사상을 찾으려 했고, 경치에서 흥취를 즐기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이치를 생각하여 시조를 창작하였다.

【모둠학습】

☞ 다음은 정철의 생애와 관련된 글이다. 정치적으로 평탄하지 못했던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며 그가 위의 시조와 같은 시조들을 노래했던 이유와 그의 인생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정철이 살았던 16세기 후반기는 훈구파*와 사림파*간의 치열한 정치투쟁이 진행되면서 사림들의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이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다. 아울러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사림파 내부에서 당파가 형성되면서 서서히 당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철 역시 서인의 영수로서 치열한 당쟁의 와중에서 몇 차례의 진퇴를 거듭 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쟁기라는 험난한 시대를 살던 그에게 술은 일종의 안식처였다고 할 만하다.

*훈구파: 성종 때 이후 등장한 신진 정치세력인 사림파(士林派)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오랜 기간 왕 옆에서 관리로 있으면서 공을 많이 세웠다는 의미의 일반 용어였으나 세조의 왕위찬탈 과정에서 공을 세워 정치권을 장악한 정치집단을 이르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관학파라고도 한다. 이 세력들은 새 왕조의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큰 업적을 남겼고, 실용적인 학문에 능하였으며, 편찬사업에 종사하여 많은 서적을 편찬하기도 하였으나 학문적으로는 사장

에 치중하여 성리학 본연의 철학적인 면은 소홀하였다.

*사립과: 고려 말, 조선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의 사화(士禍)를 겪은 15세기 말엽에 와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본래 지방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중소지주 출신의 지식인으로,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유향소(留鄕所)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력이었다.

☞ 정철의 흥취가 느껴지는 시조들을 감상 후, 모둠별로 정철에게 시조에 답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보자.

1) 내용학습

내용 학습에 있어서는 해당 시조를 함께 읽으며 어휘를 풀이하고 시조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 언어의 아름다움을 학습하는 만큼 단어의 뜻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철의 시조 두 편에서 느껴지는 시적 언어의 특징인 고유어 사용³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철 문학의 우수성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국문 사용이다. 정철은 시가 창작에 있어서 언어미의 구현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국문 사용에 있어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정철이 창작한 80여 수의 시조는 한결같이 고유어 사용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고유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 작품들이 현장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정철의 시조에서 느껴지는 생동감도 이런 이유에 있다. 정철 시조의 언어 미학은 구체적이고 토속적인 고유어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성, 그리고 회화성을 획득한 데 있다. 이러한 언어가 재료가 되어 그의 개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의 작품 구조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분위기와 흥취를 감상하는 측면으로 학습을 유도하며 학습자들

39) 이옥희, 「송강 정철 문학의 미학과 작가 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2004.

에게 정철의 시조에서 찾을 수 있는 토속적인 고유어를 찾아보도록 하고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2) 심화학습

국어 교육에서 시조 교육을 함에 있어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작가는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이며 가사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가는 정철이다. 하지만 문학 교육에 있어서 어떤 정의된 이론에 한정된 텍스트만을 제공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어 교육에서 가장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한정된 교육 과정 안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여 모든 시조 텍스트를 수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분명 더 나은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며 교육 과정에 맞는 텍스트를 선별해야 한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최대한 많은 텍스트를 학습자들에게 선보여 다양한 시조들을 감상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교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철의 시조 중 ‘남산 뒀어드메만~’과 윤선도의 시조 「오우가」를 비교 학습하는 교수 학습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정철의 시조는 ‘뒀’, ‘긱’, ‘달’, ‘바회’, ‘물’ 등의 자연물을 열거함으로써 ‘물’, ‘바위’, ‘술’, ‘대나무’, ‘달’을 노래한 윤선도의 「오우가」를 연상시킨다.⁴⁰⁾ 「오우가」에서 노래한 대상들과 정철의 시조 속에 등장한 자연물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정철의 시조의 자연물은 술자리의 풍류를 돋우는 도구적 존재로 쓰여 「오우가」가 같은 시어들을 비유법으로 이용해 사물의 특징을 의인화 하여 시상을 펼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정철의 시조에서 자연물은 하나의 배경으로 즉흥적인 흥취를 그려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정철 시조의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유교적이고 관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풍류와 감흥에 앞서 마음의 바른 도리를 찾는 시조들을 창작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정철은 산수를 노래할 때에도

40)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 월인, 2004.

정치에서 흥취를 찾거나 하고 그 배후에 있는 이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정철 시조에서 느껴지는 미학적 특징이다.⁴¹⁾

3) 모듬학습

정철이 그토록 풍류와 흥취가 느껴지는 시조들을 많이 창작하였던 이유는 그의 정치 인생과도 연관이 깊다. 굴곡이 많았던 정치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풍류와 흥취가 느껴지는 시조들은 그의 생활에 작은 휴식이 되었을 것이다. 모듬학습에서는 정철의 정치적인 삶을 통해 이러한 시조들을 창작했던 이유를 찾아보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철의 인생관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시조를 이해한 학습자들에게 작품의 수용을 통해 작가에 편지 써보기의 활동을 제시한다. 이러한 활동은 시조 작품의 감상을 넘어 내면화를 하여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조 감상에 더욱 효과적인 학습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애정·연군 시조를 통한 시조문학의 수용 교육

사대부들의 시조는 유교적 이념과 자연관을 노래한 시조들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대부들의 시조 중에도 이별과 사랑에 대해 노래한 시조들이 있었다는 것을 조선시대 사회 문화적 특징과 대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조에서 사대부들이 노래한 임은 바로 임금님이며 그것이 연군(戀君)시조이다.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조정을 떠나 있던 신하들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했던 시조들은 대부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과 떨어져 이별한 여성의 한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일군의 시조들을 통해 문학 교육에서는 문학 작품의 삶의 표현임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조를 통해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비

41) 조동일, 『제 4판 한국문학 통사』 2권, 지식문화사, 2004.

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해 보는 창작활동으로까지 학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철의 이별 시조들을 기녀 시조와 연계하여 학습해 보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시조 문학은 그 향유층이 다양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문 시가와 차별되는 시조만의 특성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기녀라는 특수계층이 시조 문학의 향유자로 아름답고 서정적인 사랑과 이별의 시조를 많이 창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같은 이별 노래임에도 화자에 따라 그 주제가 극명하게 다른 점 등을 통해 개인의 삶이 시조라는 문학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정철의 ‘이별 시조’가 화자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 학습시키고 나아가 기녀들의 ‘애정 시조’와 사대부들의 ‘이별 시조’가 표현에 있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학습해 볼 수 있도록 구상해 보았다.

【내용학습】

☞ 다음 시조를 읽고 각 시조에서 말하는 ‘님’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가)

길우히 두들부터 벗고굽고 마조서서
브람비 눈서리를 맞도록 마즐만경
人間에 離別을모르니 그를불위 흥노라

(현대역)

길 위에 두 돌부처 벗고 굽고 마주 서서
바람 비 눈서리를 맞는 대로 맞을망정
인간의 이별을 모르닌 그를 부러워하노라

어구풀이

돌부터: 돌부처
벗고 굽고: 옷을 벗고 밥을 굽고

눈서리: 눈과 서리를 아우르는 말

(나)

머귀넙 디거야 알아와 ㄱ을힌줄을
細雨 淸江이 서느립다 밤기운이야
千里의 님니별하고 즈뭇드러 흐노라

(현대역)

오동잎 저서야 알았노라 가을인 줄
가랑비 내리는 맑은 강이 서늘하도다 밤기운이야
천리에 임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어구풀이

머귀: 오동(梧桐)의 옛말
디거야: 저서야
ㄱ을힌 줄을: 가을인 줄을

세우청강: 가는비 내리는 맑은 강
서느립다: 서늘한 느낌이 있다.

『송강가사』 (성주본)

(1) 위의 시조들은 공통된 주제를 노래하고 있다. 어떠한 주제인지 생각해 보자.

(2) 다음은 사대부 시조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대부들의 시조 문학을 생각해 보며 사대부들이 창작한 ‘애정과 이별의 시조’가 내포하고 있는 숨은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사대부 지식인들은 시조문학을 꽃피우며 주도해 나간 중심 향유층이다. 사대부들은 시조를 통해 강호자연과 연군·우국 등 유교적인 이념에 대해 노래하였다. 특히 사대부들의 정신세계를 가장 집약적으로 내보이는 시조 작품의 유형은 강호시조와 교훈시조를 들 수 있다. 사대부들은 이런 시조를 노래하며 조화로운 세계의 구현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 외 벼슬에 물러나 군왕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연군시조, 지식인의 행태를 비판하는 세태시조 등도 주목할 만한 시조 유형들이다.

(3) 위의 시조들의 정서를 떠올려 보고, 어떠한 시어들이 그러한 정서를 만들고 있

는지 생각해 보자.

(가) 시조	
(나) 시조	

(4) 다음은 정철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아래 글을 읽고 위 시조들이 어떤 상황에서 창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정철이 살았던 16세기 후반기는 훈구파와 사림파간의 치열한 정치투쟁이 진행되면서 사림들의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이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다. 아울러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사림과 내부에서 당파가 형성되면서 서서히 당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철 역시 서인의 영수로서 치열한 당쟁의 와중에서 몇 차례의 진퇴*를 거듭 하기도 했었다.

*진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남

【심화학습】

☞ 다음은 각각 정철의 시조와 기녀 황진이의 시조다.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가) 정철

내 마음 버혀 내어 더 들을 땡글고져
구만리 당턴의 번드시 걸려이서
고은 님 계신 고덕 가 비취어나 보리라

(현대역)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져
구만리 장천에 번 듯이 걸려 있어

고운 입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더달: 저 달

구만리: 아득하게 먼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당턴: 장천. 끝없이 멀고도 넓은 하늘

『송강가사』 (성주본)

(나)

황진이

冬至入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꺾리라

(현대어)

동짓달 지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어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속에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정든 입이 오신 밤이면 굽이굽이 꺾리라

한허리: 허리의 한가운데

구뵤구뵤: 의태어

서리서리: 의태어

어른님: 정든 입

『청구영언(靑丘永言)』

(1) (가)와 (나)의 작품의 공통된 주제들을 생각해 보자.

(2) (가)의 시조와 (나)의 시조는 사랑하는 입을 향해 노래한 시조이다. 두 시조의 화자의 상황에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입과의 상황	화자의 신분	이별시 대처 방안
(가) 시조			
(나) 시조			

(3) 위의 시조의 화자의 상황을 작가의 신분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자.

(가)	
(나)	

(4) (가)와 (나)의 시조에서 느껴지는 표현상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5) 같은 시조 문학이며 같은 주제를 다루는 시조임에도 왜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생각해 보자.

【모둠학습】

☞ 다음은 정철의 시조와 대중가요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의 가사이다. 다음 작품들을 통해 조선시대 시조 문학의 기능을 생각해 보고 시조 창작 활동을 해 보자.

(가) 정철
나을적 언제러니 추풍의 낙엽는데
어름눈 다녹고 봄곳치 피도록애
님다히 기별을 모르니 그를설워 하노라

(현대어)
나을 때 언제였나 추풍에 낙엽 지던 땐데
얼음 눈 다 녹고 봄꽃이 피도록
임의 소식 모르니 그를 설워하노라

님 다히: 님 쪽의. '다히'는 '편, 쪽, 닿은 곳, 부근'의 뜻을 가진 옛말

『송강가사』 (성주본)

(나)

작사·작곡 유희열

지운줄 알았어 너의 기억들을
친구들 함께 모여 술에 취한 밤
네 생각에 난 힘들곤 해
그런 채 살았어 늘 혼자였잖아
한때는 널 구원이라 믿었었어
멀어지기 전엔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곤 해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1) (가)는 조선시대 정철의 시조이고 (나)의 경우는 현대에 불려지는 노래가사이다. 위 작품의 공통된 주제들을 생각해 보자.

(2) (가)의 시조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표현된 시어와 (나)의 노래 가사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표현된 노랫말을 찾아보자.

(3) 조선시대의 시조나 현대의 대중가요나 모두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유의하고 다음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조를 창작해 보자.

1년간 동고동락 했던 같은 반 친구가 멀리 전학을 가는 상황

☞ 3장 6구의 기본 형태를 지킬 것

☞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시어들을 활용할 것

1) 내용학습

위의 학습 방안은 정철의 시조 중 ‘이별시조’는 시조가 삶의 표현임을 이해시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구상하였다. ‘내용학습’에서는 정철의 시조 중 이별시의 시조 2편을 실어 사대부들의 시조 문화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에게 두 시조의 주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시조를 읽고 학습자 스스로 애정과 이별을 다룬 시조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대부 시조의 특징을 제시해 주며 위의 시조들이 전형적인 사대부 시조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였다. 또한 애정 시조인 만큼 서정성이 풍부한 시조라는 점을 생각하여 학습자들이 시조의 정서를 이해하고 느껴지는 감흥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러한 정서를 만들어 내는 시어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시조의 주제에 따라 쓰이는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대부들이 창작했던 ‘애정·연군의 시조’들은 사실상 어떠한 의도로 쓰여졌는지 생각해 보는 학습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향유했던 문학이 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지 알아 보도록 한다.

2) 심화학습

심화학습은 정철의 ‘이별시조’, 기녀의 ‘애정 시조’를 통해 사대부와 기녀들의 ‘애정 시조’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시조가 당시 향유층에게 어떠한 문학이었는지 학습해 보는 활동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두 편의 시조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시조가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의 한 갈래였음을 학습시킨다. 또한 화자에 따라 같은 주제의 두 시조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 학습을 해보고 기녀시조와 사대부시조의 표현상의 차이점과 그 이유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한다. 심화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시조 문학이 그 향유층이 다양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삶이 시조라는 문학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3) 모듬학습

모듬학습에서는 시조가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문학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학습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시조가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면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현대에 우리가 쉽게 즐겨 부르는 대중 가요와 공통된 부분이 있음을 학습시킨다. 이런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시조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또 마음을 표현하는 문학의 한 장르임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철의 이별 시조와 현대의 대중가요 중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를 함께 수록하여 느껴지는 정서와 화자의 마음에 대해 비교하여 학습해 볼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나아가 위의 학습을 통해 시조가 '표현 문학'임을 인식한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을 구상하였다.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별한 여인의 입장에서 표현한 시조나 이별 후 아파하는 남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 가사처럼 학생들에게 '전학 가는 친구와의 이별'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표현해 보게 하는 학습은 문학의 수용과 내면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학습이 될 것이다.

V 결론

시조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장르로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학이며 문학의 성격과 문학 활동, 문학의 위상과 문학과 삶이라는 문학 교육의 목표를 다방면으로 실현할 수 있는 문학 교과 텍스트의 가치를 담고 있는 문학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는 시조 문학중 송강 정철의 시조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정철 시조의 교육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현재 교육과정 10학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정철의 시조가 실려 있지 않고, 선택 과목인 18종 문학 교과서에 다양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18종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정철의 시조들은 「훈민가」가 7번, 「재 너머 성권룡에~」가 5번, 「장진주사」와 「내 마음 버려내어~」가 각각 한번 씩 수록되어 있다. 정철의 시조가 80여 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수록 현황은 다양한 정철의 시조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훈민가」 위주의 수록과 또 본시 학습으로 사용되는 교과서가 고작 2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는 정철 시조의 교육 현황이 사실상 열악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문학 교육의 현황은 정철의 시조가 그만큼의 호방하고 재치 있는 언어 사용과 또 일상어의 사용으로 정철 시조만의 특징 있는 시조 문학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정철의 시조를 주제별로 3군으로 분류하여 작품을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교훈 시조 군으로 대표될 수 있는 시조는 「훈민가」 16수는 시조가 담고 있는 내용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윤리 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소재로 충분하다. 「훈민가」는 주세붕의 「오륜가」 등의 다른 ‘훈민 시조’들과 달리 ‘삼강오륜’을 넘어 사회 공동체의 화합과 협동의 중요성을 일찍이 강조하였다. 시조가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윤리 의식

이며 「훈민가」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윤리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두 번째 군으로 분류한 시조는 ‘풍류·흥취’의 시조로 정철의 시조 문학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조 군이다. 정철의 풍류와 흥취가 느껴지는 시조들은 전체적인 시조의 분위기가 정철의 호방한 풍류가 느껴지며 전반적인 화자의 태도가 여유로워 시조를 감상하는 측면에서 학습하기 효과적이다. 시어에서 느껴지는 시적 언어의 미적 특질이나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철의 이별 시조는 연군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주제적 측면에서 시조가 표현 문학의 일종이었음을 학습시키기에 효과적일 것이다. 임금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마음이 시조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학습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고 같은 주제의 기녀 시조와 그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학습을 통해 사대부 시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시조문학이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시조를 직접 창작해보는 활동을 해 보는 활동은 시조 문학을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IV장을 통해서 3군으로 나누어진 문학적 가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학습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윤리 교육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훈민가」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윤리 덕목을 찾아보는 활동 등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정철의 인생관을 느낄 수 있고 시 속에 흥취의 멋이 살아 있는 풍류·흥취의 시조를 통해서 시조 문학의 감상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보았다. 시조 문학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어들과 시조의 감수성을 통해 시조 문학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학습안을 구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별의 시조는 시조 문학이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의 도구였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현대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조선 시대 사대부들에게도 자신의 심정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도구였음을 학습시켜 시조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문학 교육에서 ‘고전 문학’은 소위 말하는 정전(正傳)을 중심으로 교육되

어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자칫 학습자들의 사고를 한정시키고 고전 문학에 대한 시각을 좁힐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조 문학’은 향유층이 다양했던 만큼 다양하고 폭 넓은 문학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고전 시가 문학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시조 텍스트를 통해 시조 문학을 좀 더 폭 넓고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학습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측면에서 교과서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정철의 시조를 3가지 군으로 분류하여 교육 가치를 찾아보았고 교수 학습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시조 교육을 위해 다양한 관점의 시조 교육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 (상)』 교과서, 2007.
_____, 고등학교 『국어 (상)』 교사용 지도서, 2007.
_____, 고등학교 『국어 (하)』 교과서, 2007.
_____, 고등학교 『국어 (하)』 교사용 지도서, 2007.
-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상문연구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상문연구사, 2002.
-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주) 교학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주) 교학사, 2002.
-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주) 지학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주) 지학사, 2002.
- 김대행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주) 교학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주) 교학사, 2002.
-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주)케이스(현 포넷),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주)케이스(현 포넷), 2002.
-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도서출판 태성,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도서출판 태성, 2002.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주) 도서출판 디딤돌,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주) 도서출판 디딤돌, 2002.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민중서림,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민중서림, 2002.

-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금성,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금성, 2002.
-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자학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지학사, 2002.
- 박호영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형설출판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형설출판사, 2002.
- 오세영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대한교과서(주),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대한교과서(주), 2002.
-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주) 두산,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주) 두산, 2002.
-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지도서,(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청문각,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청문각, 2002.
- 한계진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주) 블랙박스,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주) 블랙박스, 2002.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주) 문원각,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주) 문원각, 2002.
-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주) 천재교육,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주) 천재교육, 2002.

2. 단행본

송강가사의 연구, 『진단학보』 6호, 1937.

권두환,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김학성 권두환 편, 『고전시가론』, 새

문사, 1984.

허왕옥, 「고전시가작품에 접근하는 교육적 관점」, 『시조학 논총』, 제 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노인숙, 「수준별 시조 수업모형」, 『시조학 논총』, 제 15집, 한국시조학회, 1999.

박정숙, 「시조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교육』 제6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김덕현, 「시조문학 교육론」, 박이정, 200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2005.

3. 학위 논문

신용대, 「정철 시조의 성격 연구- 이기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신영명, 「16세기 강호 시조의 연구-정치적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석희, 「정철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1981.

권용덕, 「고전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학석사논문, 2000.

최성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시가 교수-학습방법 연구」, 서강대 교육학석사논문, 2003.

서중관, 「정철의 「훈민가」 지도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노수경, 「의미 구조를 활용한 시조 창작교육: 「훈민가」 를 적용한 시상 전개 방법 익히기」, 홍익대 교육학 석사논문, 2008.

안정희, 「정철의 「관동별곡」 교수-학습방안 연구」, 단국대 교육학석사논문, 2005.

강기묘, 「정철 문학의 교육방법 연구」, 국민대 교육학석사논문, 1999.

ABSTRACT

A study of SONG GANG JUNG CUL's Shi-Jo literature teaching method

MINGJUNG BAEK

Majoring in Korea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aching method about SONG GANG JUNG CHUL's shi jo literature. His literary works has individuality. It has a inexorable expression and use a witty expression. JUNG CHL's shi-jo superb acommand of a korean language. Also his GA-SA literature is the best of Korean GA-SA literature. That is why in educ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teaching JUNG CHUL's GA-SA commonly.

However, JUNG CHUL's works stand high in Korean literature estimation not only because his remarkable GA-SA works but also his varieties Shi-Jo works are useful for literature education.

This thesis will describe significance of education in JUNG CHUL's Shi-Jo and consider about the way of education can teach JUNG CHUL's characteristic in his literature works.

First, analyze out present condition of education and find out problems of JUNG CHUL's Shi-Jo education. Through finding problems, This study is going to find out how JUNG CHUL's Shi-Jo literatures are

important in Shi-Jo education.

Moreover, this study going to separate and analyze JUNG CHUL's Shi-Jo literature in three parts, moral Shi-Jo, art Shi-Jo, and separation Shi-Jo. In literautre education text book, they only deal with one Jung Chul's Shi-Jo which is HUN MIN GA. Through informing JUNG CHUL's varieties Shi-Jo works other than HUN MIN GA, we try to figure out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JUNG CHUL's Shi-Jo.

Last, this study will consider three different parts of JUNG CHUL's Shi-Jo in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which are moral education, appreciation of Shi-Jo, and expression of literature. Through theses three perspectives, I try to find the way of education that can approach JUNG CHUL's Shi-Jo in many different perspective.